

몽골사에서의 탐라의 가치

양혜숙* · 박원길**

국문요약

본고는 몽골사에서 탐라가 가지는 가치를 大都와 해상루트, 몽골과 탐라의 만남, 탐라의 다로가치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몽골인들은 유라시아 초원루트를 완성했다. 특히, 코빌라이 카간(Khubilai Khagan, 재위 1260~1294)때 바닷길을 어떻게 구축해 나갔는가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탐라는 당시 바닷길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탐라가 몽골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무슨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밝혔다. 이 결과 탐라의 역사에서 코빌라이 카간은 탐라의 가치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활용한 인물로 나타났다. 탐라의 다로가치에서 이장(李莊)과 실리백(失里伯, Silbi)이라는 두 가계(家系)가 주목된다. 기록상으로 미루어 실리백의 가계가 탐라 다로가치의 적통(嫡統)으로 보인다. 또 세계 최초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도 탐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大都, 코빌라이 카간, 蒲壽庚, 탐라 다로가치, 李莊,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 몽골 국립 올라안바아타르대학교

** 칭기스칸연구센터

I. 머리말

대몽골(원)제국은 제1차 지구촌제국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바다와 육지를 하나로 통합한 제국이다. 이 세계제국의 시대이념이 팍스-몽골리카(Pax Mongolica)이다. 팍스-몽골리카는 경제적으로 천호제(Minggan-u Noyan System)와 제색호계(諸色戶計)를 기반으로 하는 중상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경제이념은 그들의 군사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그들의 군사력은 전쟁에서 속도를 제공하는 말이 최초의 기반이 되고 있다.

탐라는 몽골의 두 가지 상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탐라가 대원올로스(Yeke Yuan Ulus) 때 중앙정부가 경영하는 전국 14개 주요 국영목마장 중 하나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탐라가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처럼 주요 상업항구로서의 기능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

바다와 육지를 이었던 세계제국 몽골에게 탐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몽골사에서 탐라가 가지는 가치는 유라시아 초원 루트를 완성한 코빌라이 카간(Khubilai Khagan, C.E.²⁾1260~1294) 때 바닷길을 어떻게 구축해 나갔는가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면 나

- 1) 대몽골(원)제국 때 탐라가 크림반도와 같은 주요 상업항구로서의 기능도 했으리라고 제기하는 개략적인 논문을 발표한 박원길(Park Won-Kil, 2015: 43-47)은 탐라의 金牌 등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2) 근래 역사학계를 포함한 인문학계에서는 기독교 중심의 연대표기 방식을 변경하여 기원전을 나타내는 기존의 BC(Before Christ) 대신에 BCE(Before Common Era/Current Era), 기원후를 나타내는 AD(Anno Domini)는 CE(Common Era/Current Era)로 표기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필자진도 이러한 연(年) 표기원칙에 동의하여 기존의 B.C.는 B.C.E, A.D는 C.E.로 바꾸어 표기한다. 본고에서는 이하 C.E.의 표기를 모두 생략하였다.

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바닷길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탐라가 몽골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무슨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고는 몽골사에서 탐라가 가지는 가치를 대도(大都)와 해상루트, 몽골과 탐라의 만남, 탐라의 다로가치(達魯花赤, Darugachi)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I. 대도(大都)와 해상루트

대몽골제국은 무역과 교류를 통해 망한 나라는 없다는 중상주의 정책을 고수했던 세계통합제국이다. 또 이를 위해 잠(Jam)이라 불리는 통신·교통의 정보·군사망인 역참을 발전시켰다. 몽골어로 ‘잠’은 ‘길’, ‘잠치’는 ‘길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몽골이 발전시킨 역참은 제국의 확장에 따라 카라코룸(Kharakhorum)을 중심으로 서로는 흑해, 동으로는 북경과 운남, 남으로는 이란에까지 설치되었다. 부채꼴을 연상시키는 내륙의 길은 코빌라이 카간 때에 이르러 바닷길이라는 테두리를 갖추면서 세계 순환무역루트로서의 기능이 완비되었다. 그 상징이 바로 바다와 육지를 이은 도시인 대도(大都, 지금의 북경)이다.

1. 대몽골의 길과 대도(大都)

대몽골제국은 아랍이나 페르시아, 위구르 등 서역상인들의 합작이라고 할 만큼 처음부터 중상주의 제국으로 기획되고 시작된 제국이다. 중상주의 제국으로의 길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역참이며,

그 역참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다와 육지를 이은 대도(大都)이다. 그러면 대도는 어떻게 건립되었던 것일까.

1227년 칭기스칸이 세상을 떠난 뒤 제국의 통치집단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3남인 어거테이를 대칸으로 추대했다. 어거테이 카간(Ögödei Khagan, 재위 1229~1241)은 몽골연방을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의 이해(利害)를 하나로 일치시키며 본격적인 세계경영의 시대를 이끌었다. 이 시대의 상징이 바로 칭기스칸이 구상한 잠(Jam), 즉 역참이라는 통신망의 구축이었다. 이 덕분에 제국의 명령이 유라시아대륙의 동과 서를 관통해 전달될 수 있었다. 역참의 운영을 통해 대몽골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이 세계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재정 등 중앙정부의 조직도 정비해 나갔다.

대몽골제국은 어거테이 카간을 이은 구육 카간(Güyük Khagan, 재위 1246~1248), 명케 카간(Möngke Khagan, 재위 1251~1259) 때에 이르러 동서양을 잇는 대제국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특히 확고한 원칙제시와 뛰어난 기획력을 겸비한 명케 카간은 칭기스칸 이래 구상하던 초원과 바다를 하나로 엮는 대통합을 시도하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 1252년 코빌라이(Khubilai)의 대리(大理) 정벌과 사아리-노얀(Sa'ari-Noyan)이 이끄는 별동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이다. 1252년에 행해진 이 두 원정은 서역상인들을 위한 전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자 및 바닷길 확보를 위한 성격이 강했다.

은을 국제통화로 삼고 있었던 서역상인들에게 은광 산지인 운남(雲南)은 중요한 지방이었다. 세계무역의 통합을 꿈꾸는 명케 카간 역시 세계통합제국의 기본 화폐를 은으로 삼고자 했다. 코빌라이는 8만 명에 이르는 군대와 40만 마리에 이르는 말을 희생한 끝에 1253년 12월 대리의 수도인 태화성(太和城)을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이 대리 원정은 대몽골제국이 기획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³⁾

운남을 거의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멩케 카간은 1253년 10월 동생인 홀레구(Külegü, 1218~1265)에게 원정준비를 끝낸 대군을 이끌고 이란의 바그다드로 출발할 것을 명했다. 이란에 진입한 홀레구는 암살자의 교단이라는 명성을 들으며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던 이스마일파(Ismailism)를 완벽히 제압했다. 이스마일파를 진압한 홀레구의 서정군은 1258년 2월 10일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압바스조(750~1258)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1259년 9월에는 시리아(Syria)로 진군하여 다마스쿠스를 점령했다. 곽간(郭侃)이 이끄는 선발대는 소아시아반도를 넘어 유럽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섬키프로스도 점령했다.

멍케 카간은 운남에 대한 공략이 성공적으로 원수되고 또 서아시아 원정군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자 1256년 6월 다이르-아타가(Dayir-Ataga)에서 코릴타(Khurilta)를 개최한 뒤 정식으로 남송정벌을 결의했다. 그러나 멩케 카간이 1259년 8월 18일 조어성(釣魚城)에서 장티푸스로 사망하면서 남송정벌은 후계 대칸에게 넘겨졌다. 이 임무를 넘겨받은 인물이 코빌라이 카간이다. 그런데 코빌라이는 몽골 고유의 대칸 선출제도인 코릴타의 전통을 파기하고 대몽골제국의 동방세력을 주축으로 1260년 3월 상도(上都)에서 스스로 대칸에

3) 코빌라이의 원정 후 이곳에는 많은 이슬람상인들이 거주했다. 또 그에 따라 이슬람교 및 이슬람문화도 전파되었다. 오늘날 운남성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적잖게 회교도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그들의 후예들이다. 이후 코빌라이에 의해 바닷길이 열렸을 때 이 지방은 큰 번영을 누렸다. 그리고 바닷길을 따라 동남아시아의 요충에는 서역상인들에 의해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다. 대몽골제국이 붕괴한 후 이곳 사람들은 바닷길의 부활을 원했다. 명나라 永樂帝(1360~1424) 때 행해진 鄭和(1371~1435?)의 대원정은 바로 그 열망의 산물이다. 영락제는 명나라의 황제 중 몽골의 계획을 유일하게 계승했던 인물이었고, 정화는 운남의 회교도였다. 정화의 원정에 대해서는 山本達郎(1935), 伯希和(Pelliot, 1935), 家島彦一(1966), 寺田隆信(1981), 高榮盛(2010), 鄭鶴聲, 鄭一鈞(1984), 陳得芝(2005), 발로스(2007: 38-52) 참조.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가 있었다.

쿠데타로 대칸에 오른 코빌라이는 자신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전의 대칸들이 기획했던 제국의 플랜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1260년부터 4~5년간 제국의 통치 집단들과 대칸 계승의 정통성을 둘러싼 내전을 벌였다. 이 내전에서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게 된 코빌라이는 만주지역의 타차르(Tachar), 중앙아시아의 아르곤(Argun), 페르시아의 훌레구(Külegü), 러시아의 베르케(Berke) 등을 설득했다. 이 결과 제국의 모든 통치 집단들이 1266년 코빌라이의 근거지에 모여 그의 대칸 즉위를 공식화하고 제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자는데 합의하였다.

코빌라이에게는 1266년이 매우 중요했다. 그는 이들에게 세계통합의 수도를 보여주기를 원했다. 대도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1266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1283년에 그 첫 모습을 드러냈다. 대도가 세계제국의 수도이자 기획된 도시라는 성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 한가운데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적수담(積水潭)이라는 연못이다. 적수담의 동북 기슭에는 국제시장과 경제 관청들이 줄지어 늘어선 경제특구가 조성되었다. 이 인공 연못의 아래쪽에는 몽골초원을 상징하는 인공초지와 수림이 조성되었다. 자연 호수인 태액지(太液池) 옆에 조성된 이 초지와 수림에는 고정식 궁궐과 이동식 궁전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각 종교를 대변하는 거대한 성전들이 이 주위에 건축되었다.

이 인공호수는 오늘날 북경의 관문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기획도시 천진(天津)과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 운하는 1293년에 완성되었다. 바로 이 인공호수는 바닷길의 종착역이었다. 이로 인해 대도는 초원과 바다를 잇는 상징이 되었다. 칭기스칸의 대몽골제국이 추구했던 지구촌 통합제국의 중심지는 초원의 카라코룸이 아닌 대도에서 구현되었다.⁴⁾ 대도는 몽골인들에게는 ‘큰 도시’라는 뜻의 예케-코타

(Yeke Khota), 서역인들에게는 돌궐어로 ‘대칸이 사는 도성’이라는 뜻의 칸-발릭(Khan Balig)이라고 불렸다. 대도는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해 흐르는 역참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다.⁵⁾ 코빌라이는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해 흘러 들어오는 물자를 보관하기 위하여 대도와 상도에 이르는 지역을 대규모 물류기지로 만들었다.⁶⁾ 중앙아시아와 초원에서 유입되는 물자들은 모두 이곳에 보관되었다.

이제는 바닷길만 열면 완벽한 구도가 갖추어지는 셈이다. 페르시아와 아라비아반도를 떠난 서역의 상인들이 거대한 물자를 싣고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항주(杭州), 천주(泉州), 광주(廣州) 등 남송의 항구도시를 경유해야 했다. 코빌라이의 시대에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에서 남송전이 제일 중요했다. 물자대국인 남송은 세계 순환교역에 있어 중대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는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소비지인 남송을 파괴하지 않고 수중에 넣고자 했다.

코빌라이는 1267년 8월부터 남송의 요충인 양양(襄陽)·번성(樊城) 포위작전을 펼치며 무려 6년에 걸쳐 남송의 정예군단 사령관인 여문환(呂文煥)을 설득했다. 여문환이 투항하자 코빌라이는 1274년

4) 오늘날 북경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옛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北海公園과 고위관리들이 모여 사는 中南海가 바로 몽골이 인공적으로 조성한 초지와 숲의 유적들이다. 대도에서 처음 선보인 초지와 숲은 이후 세계 각국 도시공원의 모델이 되어 역사에서 그 맥을 이어갔다.

5) 오늘날의 북경은 명나라 영락제 때 건설한 도성의 모습이 계승된 것이다. 영락제는 1406년부터 대도의 폐허에 수도를 정하고 13년의 건설기간 끝에 1420년에 완공했다. 북경이란 명칭도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 명나라를 정복한 청나라는 순치제 때인 1644년 10월에 북경을 수도로 선포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근거가 되었던 대도는 1368년 朱元璋(1328~1398)의 대도 진입 때 크게 파괴되어 현재는 유적의 일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는 인류역사상 주목받는 도시의 하나에 속한다. 대도에 관한 연구논저는 박원길(2009: 119, 주(15)) 참조.

6) 상도와 북경 사이의 물류기지 구축에 대해서는 杉山正明(1992: 259) 참조.

6월 정식으로 남송을 공격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여문환의 군대가 앞장을 섰고 바얀(Bayan)이 이끄는 몽골군은 그 뒤를 따라 남송의 수도인 임안(臨安)에 이르렀다. 1276년 1월 18일 남송은 항복했고 코빌라이의 구상은 실현되었다.

2. 코빌라이 카간과 포수경(蒲壽庚)

1276년 1월 남송이 몽골군에 항복한 후에도 문천상(文天祥, 1236~1282)과 육수부(陸秀夫) 등을 위시한 일부 군대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당시 남송과 무역을 하면서 바닷길을 장악한 이슬람의 거대한 해양세력이었다. 그러나 이슬람상인들은 아무도 이들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 지원세력이 없던 저항군은 1279년 2월 다국적군인 서하와 한인군단에게 몰려 오늘날의 광둥성 남부 주장(珠江) 삼각주에서 최후를 맞았다. 서역상인들이 남송을 지원해 주지 않은 이유는 남송보다는 대몽골제국과 손을 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무역항인 천주(泉州)와 광주(廣州) 일대에서 남송과 무역을 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상인이 아랍 혹은 이란계 출신인 포수경(蒲壽庚)이다. 그는 천주(泉州)와 광주(廣州)를 근거지로 아라비아와 인도, 동남아시아 및 남송에 이르는 바닷길을 30년 동안 장악하고 있었다. 국제무역을 무시했던 남송정부도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어 천주항의 선박출항과 통상을 관리하는 제거시박(提舉市舶)으로 임명할 정도였다. 몇 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는 해양상인이자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행정 책임자이기도 한 인물이었다.⁷⁾

포수경의 휘하에는 수천 척의 배가 있었으며, 전쟁 발발 전부터

7) 蒲壽庚에 대해서는 桑原隲藏(1923), 杉本直治郎(1952), 前嶋信次(1952a, 1952b, 1953), 川越泰博(1974), 張秀民(1979) 등의 논저 참조.

운남에서 파견된 몽골측 서역상인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임안이 함락된 후 포수경은 대규모의 함대를 이끌고 코빌라이에게 투항했다. 그리고 코빌라이의 의도대로 남해원정을 기획하고 실행했다.(杉山正明, 1995: 205) 포수경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남해원정은 군사작전이 아니었다.⁸⁾ 원정에 참가하는 군대들은 모두 자원부대들이었다.

중앙정부는 어떤 계획이나 지시를 내려 보내지 않았다. 원정자체가 처음부터 해상상인들의 이권을 노린 경제 전쟁이었다. 베트남으로부터 태국, 버마, 자바에 걸치는 이 원정은 군사함대가 아닌 무역선단이 주축이 된 경제 함대였다. 이 함대는 현지 정권의 전복이나 섬멸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교류를 강제하는 일종의 선전부대였다. 미래의 이익을 설파하는 이 선전부대에 각국은 호응했다. 이슬람 해양 상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원정 결과 몽골은 천주(泉州)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이란의 호르무즈(Hormuz) 등과 이어지는 해상루트를 장악할 수 있었다.⁹⁾

杉山正明(1996下: 141-142)은 몽골주도로 형성된 이 세계규모의 통합 바닷길 무역로를 ‘유라시아 대교역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가 묘사한 ‘유라시아 대교역권’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 30년(1293) 전후에는 남중국해-자바해-인도양을 잇는 남쪽의 해양 루트가 몽골의 세력권내로 들어왔던 다시없는 증거가 있다. 그것은 이 해 『바사프史(Tarikh-i Vassaf)』와 『백만의 서(동방견문록)』가 일치하게 말하듯이 ‘마르코 폴로’ 일가도 함께 탄 대원올로스의 사절단 함대

8) 남해원정에 대해서는 山本達郎(1940), 丹羽友三郎(1956), 王颯(2006) 참조.
9) 대몽골(원)제국과 해양교역에 대해서는 陳高華, 吳泰(1981), 喻常森(1994), 高榮盛(1998), 白曉霞, 張其凡(2004), 劉文波(2010), 烏云高娃(2015), 四日市康博(2012: 39-48), 深見純生(2012: 49-61), 佐藤貴保, 向正樹(2012: 237-242) 등 참조. 아울러 高麗와의 무역에 대해서는 陳高華(1991), 張雪慧(2003), 樊文禮(2005), 袁曉春(2010), 周霞(2010), 崔菊華(2011) 참조.

가 훌레구 울로스(Külegü Ulus) 왕실로 시집가는 몽골의 공녀(公女)를 태우고 천주(泉州)를 출발하여 연안 각 도시를 기항하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항까지 나아간 것이다. ... 13 세기말 무렵, 몽골의 보호아래, 내륙과 해양의 두 세계, 그리고 그것을 꿰뚫는 무역로는 순환하는 하나의 큰 체계로서 연결된 것이다. 여기에 유라시아세계는 동쪽의 일본열도에서 서쪽의 브리튼(Britain) 섬까지 널리 연쇄의 고리 속에 연결되었다. 확실한 기록으로 확인된 사상 초유의 것이었다. ... 동쪽에서는 천주(泉州)·광주(廣州) 등 서쪽에서는 페르시아만에 임한 호르무즈, 그 사이에 남쪽에서는 수마트라(Sumatra)섬의 팔렘방(Palembang)이나 보르네오(Borneo)섬의 브루나이(Brunei), 인도 남단에 가까운 말라바르(Malabar)나 마야바르(Mabar) 해안의 여러 항구, 그리고 북쪽으로는 흑해연안의 수다크(Sudak), 아조프(Azov)해에 면한 타나(Tana) 등의 항구도시가 번영했다. 몽골로서는 적이었던 이집트의 맘루크(Mamluk) 왕조 치하에 있어서도 ‘카리미 상인(Karimi Merchants)’들의 활동에 동방무역은 불가결한 요소였다. 물론 지중해의 베네치아(Venezia), 제노바(Genova) 등의 항구도시국가도 말할 것도 없다.¹⁰⁾

岡田英弘(1999; 2004: 64-65)이 “세계사는 몽골제국에서부터 시

10) 참고로 흑해 연안의 크리미아(Crimea) 반도에 위치한 동서교역의 항구도시 수다크(Sudak)는 1223년과 1239년 몽골군의 침공을 받았다. 특히 이 항구도시가 칭기스칸의 서아시아 원정(1219~1225)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후 알탄오르도나 대원울로스의 바닷길 연결항로 구축망에서도 드러나듯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역항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처음부터 칭기스칸의 대몽골제국이 중상주의적 성격의 세계 순환무역망을 구상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추론은 카라코룸이나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발행된 몽골 대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금화와 은화의 존재에서도 입증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칭기스칸의 금화만 해도 100여 점에 이르는데, 대몽골제국이나 그 후계제국 대칸들의 금화나 은화에 대해서는 Nyamaa(2005) 참조. 이후 이 항구와 함께 그 주변에 위치한 카파(Kaffa) 및 아조프해의 타나(Tana)도 알탄오르도(Altan Ordo, Golden Horde, 1243~1502)의 통제를 받았으며, 이들의 주요 상대는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상인들이었다. 당시 알탄오르도와 이탈리아 상인들인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의 흑해 및 유라시아 무역에 대해서는 로저 크롤리(2012: 218-244) 참조.

작되었다” 라고 언급하는 것도 칭기스칸 이래 대몽골(원)제국이 수행했던 이러한 지구촌규모의 유라시아 대교역권의 형성 때문이었다. 바닷길의 확보는 물류기지로서의 수도권 개념을 확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라시아루트와 바닷길을 장악한 대원올로스는 육지와 바다의 정점에 선 세계국가가 되었다.

베네치아에는 대몽골제국 때 맺은 통상협정서가 보존되어 있다. 이 협정서에는 베네치아 상인들도 동방의 예에 따라 극히 낮은 상업세가 부과되며 또한 상품 운반도중에 해를 입을 경우에는 몽골이 보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杉山正明, 1992: 286) 피렌체에는 몽골제국 시대의 『상업안내서(Practica della Mercatura)』란 책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1315~1340년에 피렌체에서 활동한 페골로티(Francesco Balducci Pegolotti)가 1340년에 지은 이 책에는 흑해에서 남러시아 초원까지만 도착하면 몽골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대로 아득한 동방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김호동, 2010: 147-148; Silverstein, 2007: 161)

이 두 무역항구가 이후 유럽을 깨운 르네상스의 발원지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유럽인들은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통해 중상주의 제국인 몽골의 사상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날 사라져버린 이 제국의 행방을 매우 궁금해 했다. 그리고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훗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여 유럽의 세기를 열은 콜럼버스의 항해일지와 애독서인 동방견문록에는 몽골의 대칸인 코빌라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메모가 많이 남아 있다.(杉山正明, 1996上: 15-16) 그때가 15세기 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역사는 다시 유럽을 중심으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Ⅲ. 몽골과 탐라의 만남

탐라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또 그에 따라 격동에 휩싸인 시기는 탐라성주 양호(梁浩)가 코빌라이 카간을 만나는 1267년 1월부터 법화사의 아미타삼존불이 명나라로 떠나는 1406년 4월까지이다. 이 139년이라는 기간 동안 탐라인들은 고려, 조선과 대원올로스, 명나라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속 또는 타협과 공존, 저항과 토벌 등의 방식으로 생을 도모했다. 탐라의 법화사는 탐라 몽골세력의 정치적·정신적 중심지였다. 탐라의 몽골세력은 1374년 9월 최영이 이끄는 고려군의 공격을 받아 주력이 붕괴되었다. 법화사 아미타삼존불의 조성과 명나라 회수는 탐라 몽골세력의 흥기 및 소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¹¹⁾

1. 탐라의 근원과 가치

대몽골(원)제국의 외교정책입안은 정확한 정보에 의거하여 명분과 최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만날 때 먼저 그들에게 자신들의 근원과 가치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13세기 탐라와 몽골의 만남을 역사서에 의거해 기록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高麗史』: [1266년] 제주 성주(星主) [양호(梁浩)]가 와서 왕을 알현했다. 갑자일에 정언(正言) 현석(玄錫)을 보내 성주를 데리고 몽골로 가도록 했다.¹²⁾

11) 법화사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박원길(2013: 9-25) 참조.

12) 『高麗史』卷26「世家·元宗」: “[1266]濟州星主來見, 甲子遣正言玄錫, 以星主如蒙古”

② 『元史』: [1267년 1월] 백제가 신하 양호(梁浩)를 보내 알현하자 아름다운 비단옷을 하사했는데 [같이 온 탐라사람들과는] 차등이 있었다.¹³⁾

③ 『元史』: [1269년 7월] 황제가 명위장군(明威將軍) 도통령(都統領) 톡토아(Togtoga, 脫朶兒), 무덕장군(武德將軍) 통령(統領) 왕국창(王國昌), 무략장군(武略將軍) 부통령(副統領) 유걸(劉傑)을 [고려에] 보내 탐라에 이르는 길들을 조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고려왕 식[원종]에게 관리를 선발해 이들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탐라에서 바닷길로 남송이나 일본에 가는 것이 아주 쉽다”라고 했기 때문이다.¹⁴⁾

13) 『元史』卷6 「世祖本紀」4年(1267) 正月條: “[四年春正月]乙巳, 百濟遣其臣梁浩來朝, 賜以錦繡有差.”

14) 『元史』卷208 「外夷(一)·高麗」: “[至元]六年(1269)七月, 帝遣明威將軍都統領脫朶兒, 武德將軍統領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劉傑, 相視耽羅等處道路, 旨植[元宗]選官引達, 以人言耽羅海道往南宋·日本甚易故也”. 같은 내용이 『元高麗紀事』 「耽羅」條에도 “세조황제 지원 6년(1269, 고려 원종 10) 7월 5일, 추밀관이 성지(諱: Jarlig)를 받들어 천호 톡토아(Togtoga, 脫朶兒)와 王國昌, 劉傑을 고려 땅에 보내 탐라 등지의 길을 자세히 살피고 군병과 배를 점검하고 조사하게 하였다. 고려왕에게는 바닷길과 지리에 능숙한 관원을 선발하여 이들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성지에 이르기를, “고려국왕 王植에게 유시한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탐라에 이르러서, 남송이나 일본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 길이 아주 쉽다’고 하였다. 지금 다시 明威將軍·都統인 톡토아(Togtoga), 武德將軍·統領인 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인 劉傑을 보내 경이 준비한 군사와 배를 점검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먼저 탐라 등지의 길을 자세히 살피게 하였으니, 경은 마땅히 큰 배로 돕도록 하라. 가히 말길만한 현직 관리를 선발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그곳까지] 도달하도록 힘써서 짐의 뜻을 돕도록 하라”라고 하였다(世祖皇帝至元六年七月五日, 樞密官奉旨差千戶脫朶兒·王國昌·劉傑赴高麗地界, 相視耽羅等處道路, 整點軍兵船艦, 令高麗王選差知識海道地面好官, 領引前去, 詔曰, 諭高麗國王王植, 以其曾有人云, 若至耽羅, 欲往南宋並日本, 道路甚易, 今復遣明威將軍·都統脫朶兒, 武德將軍·統領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劉傑, 就彼點整卿所備軍兵船隻, 並先行相視耽羅等處道路, 卿當應副大船, 可選堪委見職正官, 務要引送道達, 以副朕懷)”처럼 수록되어 있

④ 『元高麗紀事』 : [1272년 11월 15일] 또 겸하여 탐라국왕이 일찍이 내조하였는데, 지금 [고려에서] 반란을 일으킨 도적이 그 주인을 몰아내고 성곽을 점거하였으니 의리상 먼저 평정해야 합니다.¹⁵⁾

⑤ 『元史』 : [1293년 2월] 연해에 수역(Usun-u Jam, 水驛)을 둘 것을 명한다. 탐라에서 압록강 하구에 이르는 11개 수역 [설치]는 홍군상(洪君祥)이 관장하도록 하라.¹⁶⁾

①과 ②의 기록은 탐라와 몽골인들의 첫 만남에 해당한다. 몽골인들은 『몽골비사(Monggol-un Nigucha Tobchiyan)』의 첫 구절이 “칭기스칸의 근원(Chinggis Khagan-u hujagur)”으로 시작되는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근원을 매우 중시하는 민족이며, 최초의 민족을 만날 때도 그들의 기원부터 파악한다. 따라서 ②의 기록 즉 『원사』의 백제 운운 기록은 1267년 1월 양호(梁浩) 등의 탐라인들이 코빌라이카간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기원(Tamra irgen-ü hujagur)을 고려가 아닌 백제와 연관 지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⁷⁾ 따라서 당시의 몽골인들이 탐라를 고려와 기원이 다른 민족계열로 판단하고 그에 입각한 정책을 폈을 가능성도 제시해 주고 있다.

③의 기록은 탐라의 가치가 처음에는 말이 아닌 교통요충에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말의 가치는 이후 답사결과 생겨난 것임

으며, 대략 같은 내용이 『高麗史』卷26「世家·元宗」9년(1268) 冬十月條에도 수록되어 있다. 『高麗史』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들을 도와준 고려 관리는 낭장 朴臣甫와 도병마록사 禹天錫으로 나타난다(『高麗史』卷26「世家·元宗」: “己亥, 遣郎將朴臣甫, 都兵馬錄事禹天錫, 從國昌劉傑等, 往視黑山島 … 十二月丁丑, 王國昌劉傑等還自黑山”).

15) 『元高麗紀事』 「耽羅」至元 9年(1272) 11月 15日條: “又兼耽羅國會來朝, 見今叛賊逐其主, 占據城郭, 義當先平”

16) 『元史』卷17「世祖本紀」30年(1293) 2月條: “詔沿海置水驛, 自耽羅至鴨淥江口凡十一所, 令洪君祥董之”

17) 고대 탐라와 백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영일(2007: 219-223) 참조.

을 보여준다. 당시 코빌라이 카간의 현안과제 중 하나가 일본 및 남송정벌이다. 따라서 일본과 남송으로 가는 바닷길 중간에 위치한 탐라는 몽골로서는 매우 주목되는 섬이 아닐 수 없다. 당시 바닷길의 요충으로서 탐라의 위상을 나타내주는 역사기록들은 ③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㉑ 『高麗史』: [1260]2월 경자일. 제주부사(副使) 판예빈성사(判禮賓省事) 나득황(羅得璜)에게 방호사(防護使)를 겸임시켰다. 조정에서 논의하기를 제주를 해외거진(海外巨鎭)으로 송나라 상인들과 왜인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이니 특별히 방호별감을 파견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⁸⁾

㉒ 『元高麗紀事』: [1268]상계서 또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서 온 사람이 바다에 관한 일을 말했는데, 송나라에서 순풍을 얻을 경우 2~3일 만에 이를 수 있고, 일본에서는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닿는다고 했다. 이렇게 말한 자는 고려인과 남인이다.”¹⁹⁾

㉓ 『元高麗紀事』: [1272]11월 15일 중서성에서 아뢰었다. “앞서 성지를 받들어 탐라와 일본의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신 등이 추밀원의 관리에게 물어보니, 남국으로부터 일본을 경유해 온 탐라인 세 명이 있는데 지도를 그려 왔습니다. 말하기를 ‘일본 태재부 등의 지역은 모두 해안에 배를 뱃 수 있으며, 대략 군사 2~3만 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²⁰⁾

18) 『高麗史』 卷25 「世家·元宗」: “[1260]二月庚子, 以濟州副使判禮賓省事羅得璜兼防護使, 朝議, 濟州海外巨鎭, 宋商島倭無時往來, 宜特遣防護別監, 以備非常”

19) 『元高麗紀事』 「世祖 5年(1268) 5月 29日」 條: “上又曰, 自爾國來者, 言海中之事, 宋則如得順風, 可兩三日而至, 日本則朝發而暮至, 言是者乃高麗人與南人也”

20) 『元高麗紀事』 「耽羅」: “[1272]十一月十五日, 中書省奏, 先奉聖旨議耽羅·日本事, 臣等同樞密院官詢問, 有自南國經由日本來者耽羅人三名, 畫到圖本, 稱日本太宰府等處下船之地俱可下岸, 約用軍二三萬”

이 기록들은 모두 탐라가 송나라와 일본의 상선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중요한 기항지임을 알려주고 있다. 즉 몽골측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탐라는 바닷길로 일본과 남송을 공략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리적 요충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섬의 규모도 그다지 작지 않아 목마장까지 갖춘 천혜의 자연조건까지도 구비하고 있다. 탐라가 일본과 중국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이라는 관점은 고창석의 지적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데,²¹⁾ 몽골로서는 바로 그 자체가 탐라의 가치였던 것이다. 몽골은 고려의 서해안 섬들을 유배지로 사용했는데, 탐라의 경우 거기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²²⁾

1293년을 기점으로 대원올로스의 정책이 평화공존의 바닷길 무역으로 전변되는데, 이 이후 탐라의 상황은 마치 섬과 유사한 크림리아 반도의 수다크(Sudak)와 카파(Kaffa) 및 아조프해의 타나(Tana)를 연상케 한다. 실제 크림리아와 탐라는 동서바닷길의 요충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자연조건 역시 서로 유사한 면이 있다. 목축과 바닷길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크림리아와 탐라에는 몽골인들이 이주하여 목축과 상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대몽골(알탄오르도)제국의 붕괴 후에도 크림리아의 몽골인들은 크림칸국(Khanate of the Crimea, 1430~1783)을 세워 무려 353년 동안 존속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필자진은 이후 탐라의 상업적 성격을 연구할 때 크림리아는 비교대상으로서 주목할

21) 고창석(1998: 455) 이후에 발표된 윤명철(2002), 오상학(2011a), 배숙희(2012a) 등의 논문도 모두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2) 이 같은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코빌라이 카간 때이다. 코빌라이 카간 이후 탐라로 유배 온 사례로 魏王 阿木哥(처음에는 耽羅, 이후 大靑島, 유배기간: 1317.1~1323.11)와 李蘭奚 大王(1340.2~종신)이 있다. 몽골의 고려 서해안 섬들의 유배지 사용에 대해서는 박원길(2009: 124-138), S.츨몬(Tsolmon, 2017: 41-50) 참조.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²³⁾

④의 기록은 당시 탐라의 정치적 위상이 금나라의 기미(羈縻) 하에 있었던 알라코시-디기드-코리(Alakhushi-Digidic-Khuri)의 영구드(Önggüd)부²⁴⁾와 유사함을 보여주는데, 의리상 먼저 평정해야 한다는 기록은 대몽골(원)제국의 정치적 이념과 원칙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는 또 몽골이 고려와 탐라를 분리해 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⑤의 기록은 탐라에서 중국, 일본, 고려로 이어지는 해로 중 고려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탐라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전통적인 뱃길은 탐진(耽津)과 나주(羅州)이다.²⁵⁾

이상 ①~⑤에 이르는 기록은 탐라에 진주한 목호의 해석에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목호의 탐라 지배와 거주를 수탈의 공식이 아니라 몽골이 거주했던 기타지역처럼 공존의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목호를 위시한 탐라민들이 고려의 기미를 받지 않는 정치적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²⁶⁾ 사실 목호를 왜구의 주력세력 중 하나로 보는 견해²⁷⁾도

23) 예컨대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요로 ‘이어도’가 있다. 이 민요에 등장하는 “이어도 흐라, 이어도 스나”의 뜻에 대해서는 김진하(2006: 33-57)의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아직까지 정설이 없다. 이어도 해석과 관련해 1989년 8월 제주도를 방문한 臺灣 政治大學 邊政研究所 하간출로 교수는 이 노래를 처음 들은 뒤, 노래의 후렴구절인 “이어도 흐라”나 “이어도 스나”가 마치 중세 몽골어의 “Yeketu khara-a, Yeketu sana-a (대본영을 파수하라! 대본영을 생각하라!)”란 뜻을 지닌 군가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을 박원길에게 말한 바 있다. 현재 청산별곡의 후렴구인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도 중세 몽골어의 ‘승리하자’나 ‘죽이자’라는 뜻을 지닌 중세몽골어로 보는 최기호(2000: 5-38; 2002: 1-31)의 논문이 제출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후 이어도 해석에 참고가 될 만하다.

24) 영구드(Önggüd)부에 대해서는 박원길(1994: 221-227) 참조.

25) 탐라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뱃길에 대해서는 황경수(2003) 참조.

26) 이 같은 시각을 보여주는 논문의 사례가 高橋公明(2002: 245-262;

있는데, 이는 탐라가 지닌 상업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탐라의 위상은 『원사』 「탐라전」이 상징하듯 대원올로스 때 가장 분명하고 독자적인 면이 강했다고 보인다.

2. 몽골의 14대 목마장 탐라

『원사』에도 대몽골(원)제국의 흥기는 “원나라는 삭방에서 일어났는데, 풍습이 말 타고 활 쏘는데 능하다. 그래서 활과 말의 힘으로 천하를 차지했다. 이는 만고에 없는 일이다”²⁸⁾라고 언급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원올로스 때 일본이나 남쪽으로 나가는 요충에 위치한 탐라는 제국의 14대 목장 중 하나로 지정될 만큼 주요 전투마 생산기지이다.²⁹⁾ 따라서 몽골과 탐라의 관계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탐라의 조랑말에 대한 연구이다.

탐라에는 말의 사육과 관련된 고유한 어휘인 ‘카치(Khachi, 哈赤)’와 ‘물테우리’가 존재한다. 필자진은 카치(Khachi, 哈赤)란 “태정제 원년(1324) 10월 13일 태복경(太僕卿) 혼단사승(渾丹寺丞) 타카이(塔

2003)이다.

27) 최영의 탐라 토벌 후 6년이 지난 1380년 9월에 남원에서 벌어진 황산 전투에 대해 高橋公明(1987: 191)은 “황산벌의 왜구는 제주도의 목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필자진 역시 황산전투의 주력을 탐라목호의 잔존세력, 그 지도자인 아기-바야토르를 1374년 갑인(甲寅)의 학살(甲寅之虐殺)을 목격할 어린 목호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박원길, 2013: 35). 왜구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秦野裕介(2002: 77-102), 佐伯弘次(2009: 23-29), 近藤浩一(2014: 130-136) 참조.

28) 『元史』卷100 「兵志·馬政」: “元起朔方, 俗善騎射, 因以弓馬之利取天下, 古或未有之”

29) 대몽골(원)제국의 馬政과 기마장비에 대해서는 吉原公平(1938), 郭慶昌(1960), 札奇斯欽(1980下), 波·少布(1995), 王磊, 張法瑞(2011), 박원길(2015a) 참조.

海, Takhai) 등이 상주하기를 탐라(耽羅)로부터 소 83마리가 이곳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곳의] 땅과 물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먼저] 카치(哈赤)에게 인도한 뒤 이들을 3살 난 암소로 바꾸어 낙인을 찍고 관아에 들이도록 허락하기를 바라나이다”³⁰⁾, “哈赤牧放官羊 … 哈赤羊群”³¹⁾ 등의 기록을 참조할 때 말이나 소, 양에 이르기까지 목축을 전업으로 다루는 자를 가리키는 총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오늘날 목동이나 목민, 목축업자를 뜻하는 말치(malchi, малч)나 말친(malchin, малчин)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고려사』를 편찬할 때 탐라의 몽골 목인(牧人)들을 특정한 명칭 없이 목호(牧胡)라 표기한 것도 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제주도에서 말치기를 뜻하는 몰테우리는 13세기 탐라 몽골인들이 카치(哈赤) 가운데 말을 다루는 자를 지칭하던 명칭으로 보인다. 필자진은 현대 몽골어에서 ① 가축무리를 쫓거나 모는 일을 토오바르(taguburi, туувар), ② 그 일에 종사하는 목동을 토오바르치(taguburichi, тууварч)나 토오바르친(taguburichin, тууварчин), ③ ‘몰리고 있는 가축’이라는 뜻인 토오바린 말(тууварын мал), ‘내모는 길’을 뜻하는 토오바린 잠(тууварын зам) 등의 단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몰테우리는 중세 몽골어인 ‘모리 타오보리(mori taguburi)’의 음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탐라의 조랑말에 대해서는 몽골말과의 유전적 혈통만이 비교 연구되어 있을 뿐 기마장비나 그에 따르는 어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하칸출로(Hakanchuluu, 哈勘楚倫, 1990) 교수의 조사

30) 『大元馬政紀』: “泰定元年(1324)十月十三日, 太僕卿渾丹寺丞塔海等奏, 自耽羅起至牛八十三頭至此, 不伏水土, 乞以付哈赤, 令變換作三歲乳牛, 印烙入官, 奉旨准”

31) 上同書

에 따르면 제주도의 방언은 13세기 몽골 동부방언이며, 어휘도 고전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³²⁾ 필자진도 지계와 물항아리 사이에 두는 호약(huyag: Mo.khuyag>хуяг)이라는 말처럼 그러한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 박원길(2005; 2015a)은 몽골적 요소와 관련된 탐라의 방언이나 말의 사육에 대해 그 일면을 다룬 적이 있다. 이 결과 탐라에는 13~14세기 몽골의 어휘와 습속이 일부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필자진은 탐라 목장은 그 크기나 목초지의 성격에서 대량으로 말을 키우는 용도보다는 일종의 말 교배 등의 성격을 지닌 실험장과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탐라의 말을 일컫는 ‘조랑말(Jiruga mori, Жороо морь)’ 자체가 대몽골(원)제국 당시 명마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 가운데 위치한 목마장이라는 점에서 해상무역에 필요한 마필을 제공받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당시 14개 목마장의 크기나 그곳에서 전해지던 특산 말들에 대한 세밀한 비교연구가 향후 진행된다면 탐라목마장의 운영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IV. 탐라의 다로가치(達魯花赤)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바다 제패를 꿈꾼 코빌라이 카간은 탐라를 매우 중시했다. 탐라는 태평양에 뜬 유라시아대륙의 향기라고 불릴 만큼 코빌라이 카간의 섬이었다. 탐라는 1273년 6월 탐라국초토사가 설치된 직후 행해

32) 강영봉 교수(1999: 1-16)는 제주어 가운데 ‘고럼, 고적, 구덕, 도곰, 도사리, 복닥, 수록, 술, 우록, 주레, 허벅, 호랑(가지)’ 등 12개 단어를 추출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중세 古形을 유지하고 있다.

진 인구조사에서 인구 총수가 10,223명³³⁾, 대원올로스의 직할지로 편제되었다는 점에서 인구조사와 함께 호(戶)마다 직업을 주어 세습시키는 제색호계(諸色戶計)라는 경제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었던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1374년 최영이 탐라의 몽골세력을 공격했을 때 획득한 금패(金牌)가 9개라는 기록에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탐라의 몽골지배층은 누구였고 또 그들은 바다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1. 탐라 다로가치(達魯花赤)의 계보와 금패(金牌)

대몽골(원)제국의 특징 중 하나는 중상주의적 경제관에 따른 제색호계(諸色戶計)라는 호적제도이다.³⁴⁾ 세계 역사상 온 나라의 백성들을 민족, 종교, 직업을 기준으로 호적과 세금 및 부역제도를 만든 나라는 대몽골제국과 대원올로스가 유일하다. 제색호계란 몽골의 케식텐(Keshigten) 조직처럼 호계(戶計)를 불문하고 일단 호적에 가입되면 대대로 상속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탈퇴할 수 없는 세습호계(世襲戶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색호계는 정복지역의 확장과 통치의 안정에 따라 서서히 구축되고 정비되어 나갔다.

탐라에 몽골의 통치기구가 처음 들어선 것은 삼별초(三別抄)가 진압된 이후인 1273년 6월에 설치된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이다. 그리고 1275년 탐라국군민도다로가치총관부(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 耽羅總管府), 1284년 탐라국군민안무사(耽羅國軍民安撫司), 1300년 탐라총관부(耽羅總管府), 1301년 탐라군민만호부(耽羅軍民萬戶府), 1333년

33) 『高麗史』 卷27「世家·元宗」15년(1274) 2월조: “又於至元十年十二月奉省旨, 濟州百姓一萬二百二十三人, 悉行供給”

34) 諸色戶計에 대해서는 黃清連(1974; 1976; 1977), 高樹林(1993a; 1993b; 1994), 吳昊, 姜茂發(2009), 박원길(2015b) 참조.

탐라국군민안무사(耽羅國軍民安撫司), 1362년 탐라만호부(耽羅萬戶府)로 명칭을 바꾸면서 다로가치를 파견해 통치했다.³⁵⁾

탐라의 다로가치(達魯花赤, Darugachi)³⁶⁾는 군정과 민정을 동시에 장악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 다로가치의 기록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려사』 등 일부 사료에 수록된 탐라의 역대 다로가치 관련 기록

년대	이름	해당기록 및 출처
1273년 6월에 설치된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		
1273	失里伯 (Silbi) ³⁷⁾	지원 10년(1273) 失里伯을 소용대장군(昭勇大將軍)으로 삼고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使)로 임명했다. ³⁸⁾
1273.6	불명	원나라가 탐라에 다로가치를 설치했다. ³⁹⁾
1275년 탐라국군민도다로가치총관부(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 耽羅總管府)		
1275. 8	遜攤 (Suntan) ⁴⁰⁾	제주 다로가치가 사자를 파견해 수졸(戍卒)을 보내달라고 독촉하자 왕이 김광원(金光遠) 등에게 명하여 4령(領)의 병력을 징발하게 했다. ⁴¹⁾

35) 탐라에 설치된 대원올로스의 통치기구에 대해서는 김일우(2007: 288-292), 배숙희(2012b: 97-105) 참조.

36) 達魯花赤은 중세몽골어 Darugachi의 음역어이지만 실제 몽골어에서 책임자를 부를 때 Daruga(>Дарга)라고 부른다. 『몽골비사』에는 Daruga(263절)와 Darugachin(263절, 273절, 274절)이 모두 등장한다. 達魯花赤이란 말은 『元史』나 元代의 碑文에서도 나오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高麗史』이다. 이에 반해 당대의 러시아에서는 다로가(Daruga)라든가 같은 뜻을 지닌 돌궐어 바스카(Baskak)이라고 불렀다 (게오르기 베르나츠키(Vernadsky, G., 2016: 317)). Daruga라는 표현은 실제 元代文獻에서도 적잖게 나온다. 기존의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耿世民(1979), 景愛(1979), 金太順(1981-3), 潘修人(1993), 白濱, 史金波(1979), 楊志玖(1985), 姚從吾(1981), 齊覺生(1971), 札奇斯欽(1980上), 湯開建(1983), 羽友三郎(1956), 原山仁子(1971), 池內功(1929), 青山公亮(1940), 村上正二(1942) 참조.

몽골사에서의 탐라의 가치

1276. 8	塔刺赤 (Tarchi, 또는 Tarachi)	원나라가 塔刺赤를 탐라의 다로가치로 임명해 보내면서 말 160필을 들여와 방목했다. ⁴²⁾
1277.10	塔刺赤	탐라 다로가치인 塔刺赤가 원나라에 갔다. ⁴³⁾
1278.2	塔刺赤	탐라 다로가치인 塔刺赤가 원나라에서 돌아오는 편에 황제가 왕에게 해동청(海東靑)을 내려주었다. ⁴⁴⁾
년대	이름	해당기록 및 출처
1278.7	塔刺赤	또 탐라의 다로가치가 나주(羅州)·해남(海南) 등지에 잠치(Jamchi, 站赤)를 제멋대로 설치했는데 이는 어떤 법령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황제께 잘 아뢰어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⁴⁵⁾
1278.9	塔刺赤	탐라의 다로가치인 塔刺赤 ⁴⁶⁾
1278.11	塔刺赤	무자일, 제주의 다로가치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 ⁴⁷⁾
1279.11	塔刺赤	계해일, 제주의 다로가치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 ⁴⁸⁾
1280.8	塔刺赤	계유일, 원경(元卿)이 원나라 중서성에서 보낸 지시공문을 휴대하고 귀국했는데, 그 내용은 탐라의 다로가치가 책임을 지고 소속 주철(鑄鐵) 기술자를 시켜 전함을 건조하라는 것이었다. ⁴⁹⁾
1283.9	塔刺赤	을축일. 탐라의 다로가치인 塔刺赤가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⁵⁰⁾
1284년 탐라국군민안무사(耽羅國軍民安撫司)		
1284.2	불명	원나라에서 제주의 다로가치를 [임명해] 보냈다. ⁵¹⁾
1284.6	불명	원나라에서 關梨帖木兒(Toli-Temür)로 하여금 군사를 인솔해 제주를 지키게 했다. ⁵²⁾
1285.2	불명	2월 무신일, 정전(正殿)에서 제주의 다로가치에게 잔치를 베풀어주었다. ⁵³⁾
1287.11	塔刺兒 (Talar)	11월 계사일, 원나라에서 塔刺兒를 보내 탐라의 다로가치로 삼았다. ⁵⁴⁾
1289.8	塔刺兒	중서성(中書省)에서 [고려로] 공문을 보내 탐라안무사(耽羅安撫使) 코토타르(Khututar, 忽都塔兒)가 원나라로부터 귀국하는 편에, 청사(靑砂) 항아리와 분(盆)·병(瓶)을 [보내줄 것을]요구했다. ⁵⁵⁾

1292.3	塔刺兒	우승(右丞) 아살(阿撒)이 와서 탐라 다로가치의 죄상을 조사했다. ⁵⁶⁾
1293.9	阿撒 (Asar)	원나라에서 탐라의 다로가치를 교지(交趾)로 유배 보내고, 우승(右丞) 아살(阿撒)로 [다로가치] 대체했다. ⁵⁷⁾
1294.11	阿撒	탐라의 다로가치에게 금실로 수놓은 옷 두 벌을 내려 주었다. ⁵⁸⁾
년대	이름	해당기록 및 출처
1296.2	阿撒	원나라에서 탐라의 목축에 관한 일로 단사관(斷事官, Jarguchi) 木兀赤(Mogulchi)를 보내 왔다. ⁵⁹⁾
1300년 탐라총관부(耽羅總管府)		
1301년 탐라군민만호부(耽羅軍民萬戶府)		
1308.3	불명	원나라에서 제주에 다로가치를 파견했다. ⁶⁰⁾
?	朴景亮 (?~1320)	嘉義大夫·耽羅軍民萬戶府達魯花赤·高麗匡靖大夫·都僉議評理·上護軍, 朴景亮 ⁶¹⁾
1323.1	林淑 (?~?)	제주만호(濟州萬戶) 임숙(林淑)이 제멋대로 임지를 이탈하므로 행성(行省)에 수감시켰다가 석방해 다시 임지로 가게 했다. ⁶²⁾
?	李莊 (?~?)	이름(諱)은 장(莊)이고 성은 이씨이며 본적은 태안이다. 대원(大元)에 들어가 탐라군민상만호(耽羅軍民上萬戶)를 제수 받았다. ⁶³⁾
?	李英秀 (?~?)	아들의 이름은 영수(英秀)인데 그 직책을 물려받았다. ⁶⁴⁾
1333년 탐라국군민안무사(耽羅國軍民安撫司)		
1338.12	奴列你他 (Nigülesültei)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奴列你他(Nigülesültei)를 탐라국군민안무사사 다로가치로 삼고 주석으로 만든 삼주호부(三珠虎符)를 내려주었다. ⁶⁵⁾
1362년 탐라만호부(耽羅萬戶府)		
1362.10	文阿但不花 (文Adam Bukha, 또는 文 Aadangga Bukha)	제주 사람들이 원나라에 예속되겠다고 요청하자 원나라에서 부추(副樞) 문아단불화[文阿但不花]를 탐라만호(耽羅萬戶)로 임명하였다. ⁶⁶⁾

37) 이 인명들의 라틴어 표기는 『몽골비사』의 한자음 표기법에 근거하여

복원한 것이다.

- 38) 『元史』卷133「失里伯傳」: “十年(1273), 遷昭勇大將軍, 爲耽羅國招討使”
- 39) 『高麗史』卷27「世家·元宗」14년(1273) 윤6월조 : “(閏[六]月)元置達魯花赤于耽羅”
- 40) 『元史』卷8「世祖本紀」至元 12년(1275) 6월 戊辰條에 “以遜攤爲耽羅國達魯花赤”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당시의 탐라 다로가치는 손탄(遜攤)이며, 字體로 보아 몽골인으로 보인다.
- 41) 『高麗史』卷28「世家·忠烈王」1년(1275) 8월조 : “[丁未]濟州達魯花赤遣使, 來督戍卒, 王令金光遠等, 調四領兵, 雖兼近侍, 悉皆僉發, 使將軍梁公勣等, 領行”
- 42) 『高麗史』卷28「世家·忠烈王」2년(1276) 8월조 : “[八月]元遣塔刺赤, 爲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四來牧”
- 43) 『高麗史』卷28「世家·忠烈王」3년(1277) 冬10월조 : “[冬十月 甲戌]耽羅達魯花赤塔刺赤如元”
- 44) 『高麗史』卷28「世家·忠烈王」4년(1278) 2월조 : “[庚午]耽羅達魯花赤塔刺赤還自元, 帝賜王海東青”
- 45) 『高麗史』卷28「世家·忠烈王」4년(1278) 7월조 : “又有耽羅達魯花赤, 於羅州·海南地面, 擅置站赤, 是何体例, 伏望善奏明降”
- 46) 『高麗史』卷28「世家·忠烈王」4년(1278) 9월조 : “耽羅達魯花赤塔刺赤”
- 47) 『高麗史』卷29「世家·忠烈王」4년(1278) 11월조 : “戊子, 濟州達魯花赤享王”
- 48) 『高麗史』卷29「世家·忠烈王」5년(1279) 11월조 : “癸亥, 濟州達魯花赤享王”
- 49) 『高麗史』卷29「世家·忠烈王」6년(1280) 8월조 : “癸酉, 元卿自元, 賫省旨來, 令耽羅達魯花赤, 自以其鐵匠, 修戰艦”
- 50) 『高麗史』卷29「世家·忠烈王」9년(1283) 9월조 : “[乙丑]耽羅達魯花赤塔刺赤還自元”
- 51) 『高麗史』卷29「世家·忠烈王」10년(1284) 2월조 : “[己亥]元遣濟州達魯花赤來”
- 52) 『高麗史』卷29「世家·忠烈王」10년(1284) 6월조 : “[六月庚午]元遣閣梨帖木兒領兵來, 戍濟州”
- 53) 『高麗史』卷30「世家·忠烈王」11년(1285) 2월조 : “二月戊申, 宴濟州達魯花赤于正殿”
- 54) 『高麗史』卷30「世家·忠烈王」13년(1287) 11월조 : “十一月癸巳, 元遣塔刺兒來, 爲耽羅達魯花赤”
- 55) 『高麗史』卷30「世家·忠烈王」15년(1289) 8월조 : “[戊午]耽羅安撫使忽都塔兒還自元, 中書省牒求青砂甕·益·瓶”
- 56) 『高麗史』卷30「世家·忠烈王」18년(1292) 3월조 : “[壬戌]右丞阿撒來, 按耽羅達魯花赤罪”
- 57) 『高麗史』卷30「世家·忠烈王」19년(1293) 9월조 : “[乙丑]元流耽羅達魯

위의 도표는 대원올로스가 1273년 윤6월 삼별초를 진압한 직후 탐라에 다로가치를 파견하여 직접통치에 임했고 그것이 제국의 말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몽골(원)제국의 직제나 호적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습이 원칙이다. 또 대원올로스는 역사상 마필 관리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왕조였다. 탐라의 경우 1296년 2월 목축에 관한 일로 단사관(斷事官, Jarguchi)이 파견될 정도이다. 따라서 말의 사육에 관련된 양마호(養馬戶)도 세밀하게 조직되었고, “친호와 백호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직을 이어간다”⁶⁷⁾라는 기록이 있듯 세습되었다.

花赤於交趾, 以右丞阿撒代之”

- 58) 『高麗史』卷31「世家·忠烈王」20년(1294) 11월조 : “[乙卯]賜耽羅達魯花赤, 織金衣二襲”
- 59) 『高麗史』卷31「世家·忠烈王」22년(1296) 2월조 : “[乙丑]元以耽羅牧畜事, 遣斷事官木兀赤來”
- 60) 『高麗史』卷32「世家·忠烈王」34년(1308) 3월조 : “[壬戌]元遣濟州達魯花赤來”
- 61) 이 명칭은 島田翰의 “刻宋本寒山寺詩集序”에 수록된 것으로 해당부분을 전사하면 다음과 같다. 『刻宋本寒山寺詩集序(島田翰)』: “又以拾得加於豐干上元時, 有高麗覆宋本, 蓋據宋本東皐寺本, 所改行上梓, 卷尾題云, 嘉議大夫, 耽羅軍民萬戶府達魯花赤, 高麗匡靖大夫, 都僉議評理, 上護軍朴景亮刊行”(杜浩祥 主編, 1980: 213).
- 62) 『高麗史』卷35「世家·忠肅王」10년(1323) 1월조 : “[十年春正月] 濟州萬戶林淑擅自離任, 囚于行省, 宥復之任”
- 63) (朝鮮)·李承召, 『三灘集』卷4「次泰安東軒韻」: “(自註)有諱莊, 姓李氏, 籍泰安, 入大元, 授耽羅軍民上萬戶”. 배숙희(2012b: 106)는 尹昌鉉의 『朝鮮氏族統譜』(漢城圖書株式會社, 1924)에 수록된 '泰安 이씨의 시조' 항목의 내용을 근거로 李莊을 成宗 大德 5年(1301)의 탐라군민만호부 혹은 탐라군민총관부의 만호로 간주하고 있다.
- 64) (朝鮮)·李承召, 『三灘集』卷4「次泰安東軒韻」: “子諱英秀嗣職”
- 65) 『元史』卷38「順帝本紀」: “[四年(1338) 十二月]以奴列你他代其父塔刺赤爲耽羅國軍民安撫使司達魯花赤, 錫三珠虎符”
- 66) 『高麗史』卷40「世家·恭愍王」11년(1362) 10월조 : “[冬十月]濟州請隸于元, 元以副樞文阿但不花爲耽羅萬戶”
- 67) 『元史』卷100「馬政」: “有千戶·百戶, 父子相承任事”

다로가치 역시 알동천호소(幹東千戶所) 금패천호(金牌千戶) 겸 다로가치(達魯花赤)를 겸하던 태조 이성계의 가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세습이 원칙이다.⁶⁸⁾ 탐라의 역대 다로가치에서 각송본한산사시집서(刻宋本寒山寺詩集序)나 이승소(李承召, 1422~1484)의 『삼탄집(三灘集)』에 “嘉義大夫, 耽羅軍民萬戶府達魯花赤, 高麗匡靖大夫, 都僉議評理, 上護軍, 朴景亮”이나 “耽羅軍民上萬戶 李莊”이라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탐라군민만호부와 연관된 인물들로 보인다. 이 가운데 박경량(朴景亮, ?~1320)⁶⁹⁾은 고려인임이 분명하지만 이장(李莊)은 고려인인지 몽골인인지 판명할 수 없다.

탐라의 다로가치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장(李莊)과 실리백(失里伯),

68) 이성계의 가계의 천호 및 다로가치의 승계에 대해서는 『太祖實錄』卷1「總序」 참조. 참고로 이성계와 연합한 여진인 李豆蘭도 여진의 세습 금패천호 집안이다 (『高麗史』卷116「李豆蘭傳」: “李豆蘭初名豆蘭帖木兒女直金牌千戶阿羅不花之子, 襲世職爲千戶”).

69) 박경량(朴景亮)은 抄軍奴인 祿大의 아들이며, 충선왕비인 趙妃의 妹婿이다. 충선왕이 즉위하자, 1303년(충렬왕 29) 충선왕이 모함을 받았을 때 이를 저지한 공으로 특별히 등용되었고, 이때 일가친척까지 모두 양민이 되었다. 보다시리-베키(Buddha-Shiri Beki, 薊國大長公主)가 趙妃를 질투하고, 대원올로스에 그를 모함하자 대원올로스에서 사신을 보내 趙妃를 징계하였는데, 이 때 함께 대원올로스에 잡혀가고 재산도 몰수당했다. 뒤에 대원올로스에서 돌아와 軍簿判書·密直副使가 되었다. 1310년(충선왕 2) 僉議評理로서 왕을 따라 대원올로스로 갔다. 이 때 충선왕은 대원올로스에 머물면서 傳旨로 정치를 하였다. 당시 燕京에 있던 金深, 李思溫 등은 충선왕의 오랜 대원올로스 체류에 대해 박경량·崔誠之, 權漢功 등의 심복들의 농간 때문이라고 徽政院에 무고했으며 이로 인해 투옥당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박경량은 충선왕 때 富春君에, 충숙왕 때 다시 興禮君에 봉해졌다. 충숙왕 7년인 1320년 上王인 忠宣王이 江南에 유배되자 遂安君 李連松 등과 함께 시종하였다. 일행이 金山寺에 이르렀을 때 충선왕을 모함하던 바얀터구스(Bayan Tögüs, 伯顏禿古思)의 간계로 인해 뒤쫓아 온 대칸의 사신에 의하여 왕이 다시 소환되었다. 이때 시종하던 신하 대부분이 도망쳐버리자 그는 충선왕이 무사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李連松과 함께 자살하였다.

Silbi)이란 두 가계(家系)인데 기록상으로 미루어 실리백의 가계가 탐라 다로가치의 적통(嫡統)으로 보인다. 또 『고려사』나 『원사』의 기록을 종합할 경우 탐라의 마정(馬政)이나 군정, 바닷길 등을 책임지는 인물의 가계가 ① 怯古里禿(Kegültü), ② 莫刺合(Murakha), ③ 失里伯(Silbi), ④ 塔刺赤(Tarchi, 또는 Tarachi), ⑤ 奴列你他(Nigülesültei)처럼 나타나고 있다.⁷⁰⁾ 그리고 奴列你他的 경우 그 어머니가 정부(鄭孚)의 딸이라고 보이지만,⁷¹⁾ 이 인물과 탐라군민상만

70) 관련기록을 모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高麗史』「世家·忠烈王」의 기록: ①“(1276.8)元遣塔刺赤爲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四來牧”, ②“(1277.10)耽羅達魯花赤塔刺赤如元”, ③“(1278.2)耽羅達魯花赤塔刺赤還自元”, ④“(1278.9)耽羅達魯花赤塔刺赤奏”, ⑤“(1281.9)塔刺赤於全羅 … 皆爲脫脫禾孫”, ⑥“(1283.9)耽羅達魯花赤塔刺赤還自 … 塔刺赤享王, 獻二馬, 求婚, 以內侍鄭孚女妻之”; 『元史』의 기록: ①“失里伯(Silbi), 蒙古人, 祖怯古里禿(Kegültü), 從太祖經略西夏有功, 又隸諸王朮赤台(Jürchedei), 領寶兒赤(Ba'urchi), 與金人戰, 歿于陣, 父莫刺合(Murakha)嗣, 從征阿藍答兒(Anandar)亦有功, 世祖賜以白金五十兩, 失里伯世其職, 由樞密院斷事官爲河南行中書省斷事官, 至元七年(1270), 佩金虎符, 引水軍四萬攻襄陽, 八年(1271)七月, 宋將范文虎來援, 失里伯敗其軍, 進圍樊城, 先登, 戰于鹿門, 與諸軍擒其將張貴, 十年(1273), 遷昭勇大將軍, 爲耽羅國招討使, 奉旨入見上都, 改管軍萬戶, 領襄陽諸路新軍, 從丞相伯顏(Bayan)等渡江, 破獨松關, 下長興, 取湖州, 行安撫司事, 十四年(1277), 授湖州總管, 進鎮國上將軍, 淮西道宣慰使, 十八年(1281)卒, 子塔刺赤(Tarchi), 曲靖等路宣慰使”(『元史』卷133「失里伯傳」), ②“[二十一年(1284)春正月]立耽羅國安撫司 … [秋七月]江淮行省以占城所遣太半達連紮赴闕, 及其地圖來上, 塔刺赤言, “頭輦哥(Terigülenggi)國王出戍高麗, 調旺速等所部軍四百以往, 今頭輦哥已回, 留軍耽羅, 去其妻子已久, 宜令他軍更戍”, 伯顏等議, 以高麗軍千人屯耽羅, 其留戍四百人縱之還家, 從之”(『元史』卷13「世祖本紀」), ③“[二十九年(1292)八月]壬子, 詔塔刺赤·程鵬飛討黃聖許, 劉國傑駐馬軍戍守 … 高麗·女眞界首雙城告饑, 敕高麗王於海運內以粟賑之”(『元史』卷17「世祖本紀」), ④“[四年(1338)十二月]以奴列你他(Nigülesültei)代其父塔刺赤爲耽羅國軍民安撫使司達魯花赤, 錫三珠虎符”(『元史』卷38「順帝本紀」)

71) 니굴레술테이(Nigülesültei, нигүүлсэлтэй): ‘동정해야 할, 애처롭다, 슬프다, 자비심이 깊다’는 뜻의 불교식 이름이다. 이 인물의 어머니는 『

호 이장(李莊)과의 관계는 기록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

『고려사』에는 대원올로스에서 고려의 군신들에게 내려준 금패(金牌)와 은패(銀牌)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고려사』는 몽골의 금패에 대해 많은 기록을 수록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 금패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려사』 등 일부 사료에 수록된 금패 관련 기록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려사』 등 일부 사료에 수록된 금패 관련 기록

번호	연대	수상자	패의 종류	출전
어거데이카간(Ögödei Khagan, 재위 1229.8~1241.11)				
1	1234.5	洪福源	金牌	元高麗紀事 ⁷²⁾
멍케카간(Möngke Khagan, 재위 1251.7~1259.8)				
2	1253	李峴	金牌	高麗史 ⁷³⁾
3	불명	閔偁	金牌	高麗史 ⁷⁴⁾
4	1259	朴希實, 趙文柱	金牌(金符)	高麗史 ⁷⁵⁾
코빌라이카간(Khubilai Khagan, 재위 1260.3~1294.1)				
5	1270.2	崔坦, 李延齡	金牌	高麗史 ⁷⁶⁾
		玄孝哲, 韓慎	銀牌	
6	1276.10	金方慶	虎頭金牌	高麗史 ⁷⁷⁾
7	1279.2	鄭公	海青圓牌	高麗史 ⁷⁸⁾
8	1280.12	忠烈王	虎頭金牌와 印信	高麗史 ⁷⁹⁾
		金方慶, 朴球, 金周鼎	虎頭金牌와 印信	
		趙仁規	金牌 및 印	
		朴之亮 等 10人	金牌 및 印	
		趙抃 等 10人	銀牌 및 印	
9	1282.8	高宗秀	金牌	高麗史 ⁸⁰⁾
10	1287.6	韓希愈	虎頭牌, 雙珠金牌	高麗史 ⁸¹⁾
11	1288.1	朴之亮, 羅裕,	雙珠金牌	高麗史 ⁸²⁾

高麗史』卷29「世家·忠烈王」9년(1283) 9월조의 “타라치가 왕을 위해 잔치를 열고는 말 두 필을 바치며 혼처를 구하므로 內侍 鄭孚의 딸을 처로 삼게 했다([壬申]塔刺赤享王, 獻二馬, 求婚, 以內侍鄭孚女, 妻之)” 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鄭孚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

		韓希愈, 張舜龍		
		百戶 以下の 軍士	銀牌	
12	1288	羅裕	金牌, 虎頭牌, 雙珠金牌	高麗史 ⁸³⁾
13	1291.9	印候, 宋玠	金牌	高麗史 ⁸⁴⁾
14	1293	高宗秀	金牌	高麗史 ⁸⁵⁾
15	불명	元卿	金牌(金符)	高麗史 ⁸⁶⁾
16	불명	朴光挺	金牌(金符)	朴居實妻元氏墓 誌銘 ⁸⁷⁾
17	불명	羅益禧	金牌(金符)	高麗史 ⁸⁸⁾

- 72) 『元高麗紀事』: “六年甲午五月一日, 賜高麗降人麟州探問神騎都領洪福源金牌, 俾領元降民戶, 于東京居住”
- 73) 『高麗史』卷130「李峴傳」: “轉官至樞密副使, 使于蒙古, 被留二年, 說也窟曰, 我國都介于海島, 貢賦皆出州郡, 若於秋前奄襲州郡, 都人必窘, 遂受金牌, 導也窟而來, 隨蒙古兵諭降諸城”
- 74) 『高麗史』卷129「崔埴傳」: “有閔僞者, 自蒙古逃還, 以所佩金牌獻埴且曰, 在蒙古時, 聞大臣密議, 今後不復東伐, 埴悅與第舍米穀衣服, 拜爲散員.”
- 75) 『高麗史』卷25「世家·元宗」1259년 8월 조: “朴尙書趙尙書二人, 令管汝之所委萬戶, 特賜金符去訖.”
- 76) 『高麗史』卷26「世家·元宗」1270년 2월 조: “丁丑, 崔坦請蒙古兵三千來鎮西京, 帝賜崔坦·李延齡金牌, 玄孝哲·韓慎銀牌, 有差, 詔令內屬改號東寧府, 畫慈悲嶺爲界”; 『高麗史』卷130「崔坦傳」: “帝賜坦及延齡金牌孝哲慎銀牌詔令內屬改號東寧府畫慈悲嶺爲界以坦等爲摠管.”
- 77) 『高麗史』卷28「世家·忠烈王」2년(1276) 10월 조: “戊辰, 金方慶受虎頭金牌, 仍齋詔書還, 王出城以迎”; 『高麗史』卷104「金方慶傳」: “金宰相有軍功賜虎頭金牌, 東人帶金符自方慶始 … 又於珍島耽羅日本隨官軍致討累捷有功宣授虎頭牌獎諭答勞”
- 78) 『高麗史』卷29「世家·忠烈王」5년(1279) 2월 조: “中郎將鄭公還自元, 帝賜王海青圓牌”
- 79) 『高麗史』卷29「世家·忠烈王」6년(1280) 12월 조: “辛卯趙仁規印侯還自元, 王迎詔于城西門外, 帝冊王爲開府儀同三司·中書左丞相·行中書省事, 賜印信, 又以金方慶爲中奉大夫·管領高麗軍都元帥, 知密直司事朴球·金周鼎爲召勇大將軍·左右副都統, 並賜虎頭金牌印信, 趙仁規爲宣武將軍·王京斷事官兼脫脫禾孫, 賜金牌印信, 朴之亮等十人爲武德將軍·管軍千戶, 賜金牌及印, 趙扑等十人爲召信校尉·管軍摠把, 賜銀牌及印, 金仲成等二十人爲忠顯校尉·管軍摠把”; 『高麗史』卷104「金周鼎傳」: “元將征日本, 王以周鼎有將略, 拜萬戶上書中書省請賜虎頭牌, 乃授召勇大將

- 軍右副都統賜虎頭金牌及印”；『高麗史』卷104「趙仁規傳」：“元以爲宣武將軍王京斷事官脫脫禾孫賜金牌，王教曰，仁規當東征時，能以國家事奏達宸所天子，授寡人中書左丞相，又賜群臣都元帥萬戶千戶金銀牌，皆其功也”；『高麗史』卷103「趙冲傳」：“方慶之討珍島也白王起忭爲將軍，又從方慶征日本有功，後元復征日本，忠烈請于帝授昭信校尉管軍摠把賜銀牌及印”
- 80) 『高麗史』卷29「世家·忠烈王」8년(1282) 8월조 : “乙未, 大將軍印侯, 還自元, 帝以內僚高宗秀爲巡馬千戶, 仍賜金牌, 王嬖宗秀表請故也”
- 81) 『高麗史』卷30「世家·忠烈王」13년(1287) 6월조 : “己巳, 闕兵訖親祭轟于宮門, 以金周鼎虎頭牌賜朴之亮, 爲左翼萬戶, 以朴球虎頭牌賜羅裕, 爲中翼副萬戶”；『高麗史』卷104「韓希愈傳」：“忠烈時拜副知密直司事, 王聞乃顏大王叛, 將助征, 賜希愈虎頭牌爲右翼萬戶, 將兵啓行, 聞帝已擒乃顏, 罷兵還, 後帝賜雙珠金牌, 授帳前萬戶”
- 82) 『高麗史』卷30「世家·忠烈王」14년(1288) 1월조 : “丙午, 帝賜萬戶·千戶·百戶, 金銀牌雙珠金牌, 四分賜朴之亮·羅裕·韓希愈·張舜龍, 銀牌分賜百戶以下軍士”；『高麗史節要』卷21「世家·忠烈王」14년(1288) : “(元至元二十五年春正月)將軍張舜龍還自元, 帝賜萬戶千戶百戶金銀牌·雙珠金牌, 四分賜朴之亮·羅裕·韓希愈·張舜龍, 銀牌分賜百戶以下軍士”；『高麗史』卷123「張舜龍傳」：“張舜龍本回回人, 初名三哥, 父卿事元世祖爲必闐赤, 舜龍以齊國公主怯怛口來, 授郎將累遷將軍, 改今姓名 … 元授宣武將軍鎮邊管軍摠管征東行中書省都鎮撫, 王遣舜龍如元獻女, 求買公主眞珠衣, 帝賜舜龍雙珠金牌”
- 83) 『高麗史』卷104「羅裕傳」：“又從方慶與元將忽敦等征日本, 遷鷹揚軍大護軍, 帝賜金牌授武德將軍管高麗軍千戶以賞軍功 … [1287.6]王之請親征乃顏也, 賜裕虎頭牌爲中翼副萬戶, [1288.5]及班師策爲一等功臣, 賜錄券田一百結臧獲二十口, 授明威將軍, 帝賜雙珠金牌”
- 84) 『高麗史』卷30「世家·忠烈王」17년(1291) 9월조 : “己亥, 元遣洪重慶, 授王爲征東行中書省左丞相, 以印侯鎮邊萬戶府達魯花赤, 宋玠爲宣武將軍鎮邊萬戶, 劉碩爲忠顯校尉管軍千戶, 皆賜金牌”；『高麗史』卷125「宋玠傳」：“十七年(1291), 元授宣武將軍鎮邊萬戶, 賜金牌”
- 85) 『高麗史』卷123「高宗秀傳」：“王表請于帝, 授武略將軍巡馬千戶, 賜金牌, 後加王京等處管軍萬戶府萬戶, 賜三珠虎符”
- 86) 『高麗史』卷124「元卿傳」：“(元)卿幼習蒙語, 屢從王入朝, 世祖常呼之曰納麟哈刺(Narin Khara), 以其應對詳敏舉止便捷, 故曰納麟(Narin), 鬚髯美黑, 故曰哈刺(Khara), 嘗受元命, 爲武略將軍征東行中書省都鎮撫, 帶金符”. 이곳에 등장하는 納麟哈刺에 대해 白鳥庫吉(1970: 439)은 『元史語解』卷14의 ‘納琳哈刺’를 인용하면서 당시 몽골인들은 민첩한 사람들

대몽골(원)제국의 패(牌子, paiza, Mo. gerege)는 일반적으로 군대의 징발이나 성지(聖旨)의 전달, 관료권위의 보장 등에 사용된다. 패에는 몽골문이나 거란문, 파스파 몽골문, 한자 등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칭기스칸의 성지(天賜成吉思皇帝聖旨: Tenggeri-eče soyurgagsan Činggis Khagan-u jarlig)’, ‘영원한 하늘의 힘으로(Möngke Tenggeri-yin küchün-dür)’, ‘대칸의 위광으로(Khagan abaga-yin suu-tur)’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⁸⁹⁾

고려시대 몽골의 금패수여 시기는 일본 정벌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수는 대략 30개를 헤아린다. 고려는 대원올로스에서 내려주는 금패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 과욕을 걱정하거나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였다.⁹⁰⁾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탐라의 금패이다. 최영

을 이런 이름으로 부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 87) 朴居實妻元氏(1288~1334)墓誌銘:“(朴恒)子曰光挺(1246~1310), 始以本國子弟被選宿衛闕庭, 受天子之命, 帶金符, 爲昭信校尉, 高麗西京等處水手軍副万户兼匡靖大夫·平壤府尹, 而卒”
- 88) 『高麗史』卷104「羅益禧傳」:“益禧(?~1344), 年十七, 受元命, 帶金符, 爲上千戶, 後襲爵, 拜管軍上萬戶, 帶三珠虎符”
- 89) 대몽골(원)제국의 牌子에 대해서는 賈敬顏(1990), 喬今同(1980), 蔡美彪(1980; 1996: 14-20), 丁毅博(1963), 包祥(2000: 30-32), 陳永志(2003: 30-37), 箭內互(1930: 839-899), 羽田亨(1930: 1957), 榎一雄(1944), Cleaves(1953: 237-259), Rachewiltz(1971), Munkuyev(1977: 185-215), Marco Polo(1992: 351-354, note.2), Yang Hye-suk(2006: 101-108), Латгимор(1973:241-242), Пэрлээ(1976: 90-99; 2001: 312-323), Жанчив(2005: 79-80) Банзаров(1997: 80-90), Жамцарано(1914: 155-159), Крамаровский(2001: 72-79) 참조.
- 90) 이에 대한 우려와 여론을 잘 보여주는 것이 『高麗史』卷30「世家·忠烈王」14년(1288) 2월조의 “무인일. 중랑장 鄭之衍이 금패와 은패를 받아 가지고 원나라로부터 돌아오자 당시 여론이, “우리나라는 백성은 있어도 군사는 없는 터에 만호·천호에게 줄 금·은패를 그렇게나 많이 요청하였으니, 만일 원나라에 사변이 생겨 금·은패의 수대로 군사를 징발한다면 어찌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戊寅, 中郎將鄭之衍齎金銀牌還自元, 時議曰, 本國有民無軍, 而多請萬戶千戶金銀牌, 若朝廷有事, 以牌

(崔瑩)은 1374년 9월 탐라를 공격한 뒤 다음의 기록처럼 금패 9개와 은패 10개를 습득하고 있다.

적 괴수의 재산을 모조리 몰수하고 모든 계약 문건과 금·은으로 만든 패(牌), 도장 및 말 등록부 역시 모두 몰수할 것인 바 이것을 얻은 자에게는 상을 준다. ... 또 금패(金牌) 9개, 은패 10개, 도장 30개, 말 1천 필을 노획하였다. 도장은 만호(萬戶), 안무사(安撫使), 성주(星主), 왕자(王子)에게 주고 말은 여러 고을에 나눠 주어 키우게 하였다.⁹¹⁾

대원올로스 시대 탐라의 몽골인들이나 지배층에게 하사한 금패의 경우, 이곳의 몽골주둔군이 1274년 일본정벌 이후에 주둔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직할령 편입 이후에 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최영이 몽골세력을 공격했을 때 획득한 금패 9개나 은패 10개는 대원올로스에서 몽골인들에게 하사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금패의 숫자는 이곳의 몽골세력이 단순히 목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아직 연구가 안 되어 있지만 탐라의 본래 기능인 상업기항지로서의 역할, 즉 기항 및 내용물 확인이나 세금징수 등을 관장하는 자들에게 수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최영은 도장 30개를 몽골세력에게서 빼앗았는데, 원래 13세기 때 몽골에서 도장을 의미하는 탐가(Tamaga>Tamra)는 상업세와 동일시 될 정도로 세금징수의 기능을 상징하고 있다.⁹²⁾

數徵兵，則若之何)”라는 기록이다. 『高麗史節要』卷21「충렬왕 14년」조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元至元二十五年，二月]中郎將鄭之衍，賫金銀牌，還自元，時議曰，本國有民無軍，而多請萬戶千戶金銀牌，若朝廷有事，以牌數徵兵，則若之何).

91) 『高麗史』 卷113 「崔瑩傳」：“賊魁家產悉輸官，且得公私契券金銀牌印信馬籍，亦皆輸官，得者有賞 … 得金牌九銀牌十印信三十馬一千匹，印信付萬戶安撫使星主王子，馬分養于諸州卒”

92) 몽골 탐가의 역사적 변천과 크림리아 반도 카파(Kaffa, 지금의 Feodosia) 성루의 문에 새겨진 알탄오르도(Altan Ordo)의 인장에 대해서는 박원

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와 이회(李薈)

조선 태종시기인 1402년에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가 제작되었는데, 탐라가 선명하고 크게 부각된 이 지도에 표기된 지명들은 현재 분광조사결과 5000개가 확인되었다. 이 지도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연구논저가 나와 있다.⁹³⁾ 이 지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이다. 이 세계지도는 조선 초기 국가 최고의 의결기관인 의정부의 최고위급 관원들이 동원되어 만든 것인데, 권근(權近)은 지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제작 동기를 밝힌 발문을 썼다.

천하는 지극히 넓다. 안으로 중국에서 밖으로 사해에 닿아 몇 천만 리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요약하여 두어 자 되는 폭(幅)에다 그리면 자세하게 기록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도를 만든 것이 대개 소략한데, 오직 오문(吳門), 이택민(李澤民)의 성교광피도(聲教廣被圖)는 매우 상세하게 갖추었으며, 역대 제왕의 국도연혁(國都沿革)은 천태승(天台僧) 청준(淸濬)의 혼일강리도에 갖추어 실렸다. 건문(建文) 4년(1402, 태종2) 여름에 좌정승 상락(上洛) 김공 사형(士衡)·우정승 단양(丹陽) 이공 무(茂)가 정사를 보살피는 여가에 이 지도를 참고, 연구하여 검상(檢詳) 이회를 시켜 다시 더 상세히 교정하게 한 다음에 합하여 한 지도를 만들었다. 요수(遼水) 동쪽과 우리나라 지역은 이택민의 광피도에도 또한 많이 권략되었으므로,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를 더 넓히고 일본 지도까지 붙여 새 지도를 만드니, 조리가 있고 볼만하여 참으로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다. 대저 지도를 보고서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아는 것도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한 도움이 되는 것이니, 두 공이 이 지도에 정성을 다한 데에서도 그

길, 백승정(2014: 121-128) 참조.

93) 현재까지 나온 주요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宮紀子(2007), 오상학(2011b) 村岡倫(2011a; 2011b), 조지형(2012), 백옥경(2012), 汪前進, 2012), 최창모(2013) 등 참조.

규모와 국량의 방대함을 알 수 있다. 근(近)은 변변치 못한 재주로 참찬(參贊)이 되어 두 공의 뒤를 따라 이 지도가 완성됨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매우 다행하게 여기는 바다. 평소 책에서 강구하여 보고자 하던 나의 뜻을 이미 이루었고, 또 내가 후일 물러가 시골에 있으면서 누워서 유람하는 뜻을 이루게 됨을 기뻐하며 이 말을 지도 아래 쓴다. 이해 가을 8월 일 기록한다.⁹⁴⁾

이 지도는 권근(權近)의 발문을 보면 김사형(金士衡)과 이무(李茂)는 지도 제작을 기획하였고, 실무는 이회(李薈)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회가 그 전에 조선팔도도(朝鮮八道圖)를 제작한 것을 감안하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域大國圖)를 제작한 실제 주역은 이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지도의 제작자가 가계적으로 탐라와 연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회의 가계는 외손인 이승소(李承召)의 문집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이름(諱)은 장(莊)이고 성은 이씨이며 본적은 태안이다. 대원(大元)에 들어가 탐라군민상만호(耽羅軍民上萬戶)를 제수받았다. 아들의 이름은 영수(英秀)인데 그 직책을 물려받았다. 원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고려)에 돌아와 개성소호인 경(卿)을 낳았다. 소윤(少尹)은 통정대부(通政大夫)이며 사간원(司諫院)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인 회(薈)를 낳았다. 그는 시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94) (朝鮮)·權近, 『陽村集』卷22「歷代帝王混一疆理圖誌」: “天下至廣也, 內自中國, 外薄四海, 不知其幾千萬里也, 約而圖之於數尺之幅, 其致詳難矣, 故爲圖者率皆踈略, 惟吳門李澤民聲教廣被圖頗爲詳備, 而歷代帝王國都沿革, 則天台僧清濬混一疆理圖備載焉, 建文四年夏, 左政承上洛金公士衡, 右政丞丹陽李公茂, 燮理之暇, 參究是圖, 命檢詳李薈更加詳校, 合爲一圖, 其遼水以東及本國疆域, 澤民之圖亦多闕略, 方特增廣本國地圖, 而附以日本, 勒成新圖, 井然可觀, 誠可以不出戶而知天下也, 夫觀圖籍而知地域之遐邇, 亦爲治之一助也, 二公所以拳拳於此圖者, 其規謨局量之大可知矣, 近以不才, 承乏參贊, 以從二公之後, 樂觀此圖之成而深幸之, 旣償吾平日講求方冊而欲觀之志, 又喜吾他日退處環堵之中而得遂其卧遊之志也, 故書此于圖之下云, 是年秋八月日, 誌”

일찍이 우리 왕세자를 모시고 [1394년] 명나라에 들어가 금릉(金陵: 南京)에서 영락황제를 만났다. 황제가 보살고시(菩薩古詩: 菩薩故事로 이루어진 古詩)를 지어 보이며, 주위에 화답시를 지어 올릴 것을 명하였다. 운(韻)이 강해 일행들이 모두 곤혹하여 감히 붓을 들지 못하였는데, 사간(司諫) [이회는] 검교(檢校) 한성윤(漢城尹) 이맹운(李孟雲)의 딸에게 장가들어 우리 어머니를 낳으셨으므로 이에 일러두는 바이다.⁹⁵⁾

원래 고려 말의 정치상황에서 이성계는 돌아온 몽골과 세력의 우두머리이고 이인임(李仁任, ?~1388)은 고려내 몽골세력의 우두머리였다. 그리고 조선의 건국 후 친몽세력들은 모두 이성계 주변에 모여들었고 이성계의 사후에는 태종 이방원(李芳遠, 1367~1422)의 주변에 포진했다. 바로 『삼탄집』의 기록은 그런 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의 선조인 이장(李莊)은 그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고려사』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이 몽골인이거나 혹은 탐라목호 세력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 인물이다.

조선의 태종은 지금의 올라안비아타르 동북쪽에서 벌어진 명나라 영락제의 2차 몽골원정(1414)이 패배로 끝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⁹⁶⁾ 이는 북방정세에 정통한 인물들이 그의 주변에 포

95) (朝鮮)·李承召, 『三灘集』卷4「次泰安東軒韻」: “(自註)有諱莊, 姓李氏, 籍泰安, 入大元, 授耽羅軍民上萬戶, 子諱英秀嗣職, 元亡, 歸于我朝, 生開城少戶諱卿, 少尹生通政大夫司諫院左司諫, 大夫諱蒼, 以詩文鳴世, 嘗侍王世子, 入見永樂皇帝于金陵, 帝出菩薩古詩, 命賡進, 韻強, 在行者, 皆錯愕莫敢操筆, 司諫即應製以進, 帝奇其能, 司諫娶檢校漢城尹李孟雲女, 生我慈親故云”

96) 명나라 영락제의 다섯 차례 몽골원정과 전투마다의 승리는 세계 각국의 역사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태종 14년 9월 19일 己丑」조에는 명나라 영락제의 2차 원정에서 명나라 군대가 서부 몽골 오이라드(瓦剌, Oyirad)의 마흐무드의 군대에게 패했다는 “요동인이 모두 말하기를, 왕사(王師)가 북인(北人)과 전투를 벌

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이회의 가계나 그의 행적은 태종이 어떻게 북방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단서이다. 아울러 이전 몽골이 어떻게 탐라를 파악하고 있는가를 역으로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V. 맺는말

이상 몽골사에서의 탐라의 가치를 대도(大都)와 해상루트, 몽골과 탐라의 만남, 탐라의 다로가치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결과 왜 몽골이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섬인 탐라에 대원올로스의 14대 목마장 중 하나를 건설했고 몽골인을 이주시켜 그것을 유지할 만큼 중시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그들의 정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해 결론을 지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몽골(원)제국은 인류역사에서 팩스-몽골리카라는 인류통합의 시대이념을 제시한 최초의 지구촌제국이다. 그들은 교역을 중시하는 중상주의라는 시대이념에서도 나타나듯 역사적으로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13세기에 정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와 육지를 잇는 세계

일 때 북인이 북병을 숨겨 두고 거짓 패하여 달아나니, 왕사가 북병이 있는 곳까지 깊이 들어갔다가 그 뒤가 끊겨 여러 겹으로 포위당하였다. 황제가 화약으로써 포위를 뚫고 나와서 밤낮으로 달려서 돌아왔다(遼東人皆云, 王師與北人交兵, 北人伏奇兵, 佯敗而走, 王師深入, 奇兵絕其後, 圍數重, 帝以火藥突圍而出, 倍日而還)”라는 기록이 실려 있다. 이는 『명사』를 비롯한 기존의 중국 문헌기록들이 모두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순환무역로 구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한반도와 일본, 중국을 잇는 바닷길의 중심에 위치한 탐라는 필연적이라 할 정도로 몽골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크림리아 반도와 같이 몽골인의 이주까지 행해지게 되었다.

둘째, 현재까지 대원올로스와 탐라 관계사 연구에서 탐라의 가치는 상업과 말 중에서 말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몽골이 탐라의 가치를 최초로 주목한 것은 말이 아닌 길이었다. 코빌라이 카간이 바다와 육지를 이은 거대한 중상주의제국을 완성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바닷길의 요충지인 탐라를 단순히 말만 키우는 기지로 활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단순히 말만 키우는 곳에 금패 9개를 하사할 이유도 없는 것처럼 탐라는 분명 숨겨진 역할이 있다고 보인다. 탐라는 그 위치나 성격이 크림리아 반도 및 그 안에 위치한 무역도시들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탐라가 『원사』 「외이전(外夷傳)」에 ‘고려, 탐라, 일본’ 순으로 병렬 표기되어 있는 것은 말의 사육장이 아닌 해상루트 상의 독립된 나라로서의 가치평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탐라의 다로가치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장(李莊)과 실리백(失里伯, Silbi)이란 두 가계(家系)인데 기록상으로 미루어 실리백의 가계가 탐라 다로가치의 적통(嫡統)으로 보인다. 실리백의 가계는 ① 怯古里禿(Kegültü), ② 莫刺合(Murakha), ③ 失里伯(Silbi), ④ 塔刺赤(Tarchi 또는 Tarachi), ⑤ 奴列你他(Nigülesültei)처럼 나타나는데, 니굴레술테이(Nigülesültei)의 경우 그 어머니가 정부(鄭孚)의 딸로 여겨지지만, 이 인물과 탐라군민상만호(耽羅軍民上萬戶) 이장(李莊)과의 관계는 기록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

넷째, 1402년 조선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탐라군민상만호인 이장(李莊)의 집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장은 『고려사』에 기록이 없는데, 그 이유는 탐라의 유력

인물들이 고려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도(大都)와 교통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제작은 조선의 태종이 명나라나 북원 등 세계 각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기반을 이루는 것이 탐라라는 점에서 대원올로스 시대 탐라인들의 세계인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상 북방유목민족사적인 입장에서 탐라를 바라보면, 탐라는 조랑말과 함께 몽골의 바닷길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섬이다. 그리고 탐라의 역사에서 코빌라이 카간은 탐라의 가치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활용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鄭麟趾 等 撰, 『高麗史』
金宗瑞 等 撰,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大元馬政紀』, 台北廣文書局, 1972年本.
『元高麗紀事』
宋濂 等 撰, 『元史』, 中華書局(標點本).
『몽골비사』
(朝鮮)·權近, 『陽村集』
(朝鮮)·李承召, 『三灘集』
朴居實妻元氏(1288~1334)墓誌銘.
- 강영봉, 1999,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의 비교 연구」, 『탐라문화』 20.
高橋公明, 2002,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와 고려」, 『도서문화』 20.
고창석, 1998, 「『元高麗紀事』耽羅關係 紀事の 檢討 : 13세기 耽羅와 元과의 關係」, 『경북사학』 21.
게오르기 베르나츠키(Vernadsky, George), 2016, 『몽골제국과 러시아』, 김세웅 옮김, 도서출판 선인.
김일우, 2007,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김진하, 2006, 「제주도 민요의 후렴 “이여도”의 다의성과 이여도 전설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8.
김호동, 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로저 크롤리, 2012, 『500년 무역대국: 부의 도시 베네치아』, 우태영 옮김, 다른세상, 2012.
박원길, 1994, 『몽골 古代史 研究』, 해안.
_____, 2005, 「제주습속 중의 몽골적인 요소—조랑말의 뜻과 제주방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8.
_____, 2009, 「몽골과 바다」, 『몽골학』 26.
_____, 2013, 「영락제와 제주도」, 『제주도연구』 40.
_____, 2015a, 「대몽골(원)제국 시대의 양마법(養馬法)과 기마장비」, 『제

- 주도연구』 43.
- _____, 2015b, 「대몽골(원)제국의 백성분류체계」, 『몽골학』 41.
- 박원길, 백승정, 2014, 「한·몽 전통문양의 역사적 변천-탐가와 십장생을 중심으로-」, 『몽골학』 39.
- 발로스, 2007, 『지도를 만든 사람들』, 홍영분 옮김, 아침이슬.
- 배숙희, 2012a, 「원대(元代) 경원(慶元)지역과 남방항로(南方航路)-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 『중국학보』 65.
- 백옥경, 201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산악(山嶽) 표기에 나타난 제인식(諸認識)」, 『이화사학연구』 45.
- _____, 2012b, 「원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중국사연구』 76.
- 四日市康博, 2012, 「몽골제국과 해역아시아」, 桃木至朗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 오상학, 2011a, 「한·중·일 고지도에 표현된 이어도 해역인식」, 『국토지리학회지』 제5권 1호.
- _____, 2011b,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 汪前進, 201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제작과 조선 태종의 천도 및 지방행정제도 개혁과의 관계」, 『이화사학연구』 45.
- 윤명철, 2002, 「제주도의 해양교류와 대외항로」, 『東國史學』 37.
- 조지형, 201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아프리카: 비교사적 검토」, 『이화사학연구』 45.
- 佐藤貴保, 向正樹, 「해상과 육상의 互市 무역과 국가-송원시대를 중심으로-」, 桃木至朗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 佐伯弘次, 2009,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교과서위원회,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 진영일, 2007,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 S.출몬(Tsolmon), 2017, 「원나라에서 고려로 유배되었던 몽골 귀족」, 『“단절을 넘어 소통으로”-유배섬의 역사와 문화교류, 2017년 유

- 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제주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주학회, 2017.
- 최기호, 2000, 「<청산별곡>의 형성 배경과 몽골 요소」, 『문학한글』 14.
- , 2002, 「<청산별곡>의 형성과 몽골 요소」, 『몽골학』 13.
- 최창모, 2013,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1402년)의 제작 목적 및 정치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23-1.
- 深見純生, 2012, 「宋元대의 해역동남아시아」, 桃木至朗 역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 황경수, 2003, 「해방 이전 제주항로의 변천사 연구」, 『탐라문화』 23.
- 賈敬顏, 1990, 「成吉思汗御署符牌」, 『民族歷史文化萃要』,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 耿世民, 1979, 「『大元肅州路也可達魯花赤世襲之碑』 回鶻文部分譯釋」, 『民族研究』 1979-1.
- 景愛, 1979, 「跋出土元代管水達達民戶達魯花赤之印」, 『南開大學學報』 1979-2.
- 高樹林, 1993a, 「元朝民戶計研究: 元朝“諸色戶計”研究之一」, 『河北學刊』 1993-2.
- , 1993b, 「元朝匠戶計研究: 元朝“諸色戶計”研究之二」, 『河北學刊』 1993-5.
- , 1994, 「元朝治煉戶計研究: 元朝“諸色戶計”研究之三」, 『中國經濟史研究』 1994-3.
- 高榮盛, 1998, 『元代海外貿易研究』,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 , 2010, 『鄭和航海圖』三議, 『元史淺識』, 南京: 鳳凰出版社.
- 喬今同, 1980, 「元代的符牌」, 『考古』 1980-6.
- 郭慶昌, 1960, 「關於元代的馬政」, 『歷史教學』 1960-5.
- 金太順, 1981, 「元代“管水達達民戶達魯花赤之印”」, 『求是學刊』 1981-3.
- 杜浩祥 主編, 1980, 『寒山寺志』, 『中國佛寺史志匯刊』 第一輯 第43-1冊, 台北: 明文書局.
- 劉文波, 2010, 「宋元時期泉州社會經濟變遷與海外貿易—兼析泉州古代經濟發展之路」, 『泉州師範學院學報』 2010-5.

- 潘修人, 1993, 「元代達魯花赤的職掌及爲政述論」, 『內蒙古社會科學』 1993-6.
- 白濱, 史金波, 1979, 「『大元肅州路也可達魯花赤世襲之碑』考釋」, 『民族研究』 1979-1.
- 白曉霞, 張其凡, 2004, 「元朝與印度的海上貿易」, 『內蒙古大學學報』 2004-6.
- 波·少布, 1995, 「元朝的馬政制度」, 『黑龍江民族叢刊』 1995-3.
- 伯希和(Pelliot, P.), 1935, 『鄭和下西洋考』, 馮承鈞譯, 上海: 商務印書館.
- 楊志玖, 1985, 「釋“達魯花赤”」, 『文史知識』 1985-8.
- 樊文禮, 2005, 「唐代“登州海行人高麗道”的變遷與赤山法華院的形成」, 『中國歷史地理論叢』 2005-2.
- 吳昊, 姜茂發, 2009, 「我國元代戶籍分類制度研究」, 『寧夏社會科學』 2009-6.
- 烏云高娃, 2015, 「忽必烈的東亞海外政策及禪宗影響」, 『海交史研究』 2015-2.
- 姚從吾, 1981, 「舊元史中達魯花赤初期的本義爲“宣差”說」, 『姚從吾先生全集(5)』, 台北: 正中書局.
- 王磊, 張法瑞, 2011, 「略論元代的馬政」, 『古今農業』 2011-1.
- 王頰, 2006, 「元王朝與爪哇的戰爭和來往」, 『史林』 2006-4.
- 袁曉春, 2010, 「高麗使節鄭夢周登州史迹考」, 『延邊大學學報』 2010-1.
- 喻常森, 1994, 『元代海外貿易』, 陝西: 西北大學出版社.
- 張雪慧, 2003, 「試論元代中國與高麗的貿易」,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03-3.
- 張秀民, 1979, 「蒲壽庚爲占城人非阿拉伯人說」, 『蘭州大學學報』 1979-1.
- 丁毅博, 1963, 「元代牌符考」, 『中華文史論叢』 1963-4.
- 鄭鶴聲, 鄭一鈞, 1984, 『鄭和下西洋資料匯編(上), (下)』, 濟南: 齊魯書社.
- 齊覺生, 1971, 「元代縣的「達魯花赤」與「縣尹」」, 『國立政治大學學報』 23.
- 周霞, 2010, 「元朝時期的山東半島在與高麗海上商貿交往中的重要作用」, 『魯東大學學報』 2010-5.
- 陳高華, 1991, 「元朝與高麗的海上交通」, 『진단학보』 제71·72호.
- 陳高華, 吳泰, 1981, 『宋元時期的海外貿易』,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陳得芝, 2005, 「明代海外交通的發展與明初鄭和下西洋」, 『蒙元史研究叢稿』, 北京: 人民出版社.
- 陳永志, 2003, 「蒙元時期的牌符」, 『內蒙古大學學報』 2003-1.
- 札奇斯欽, 1980上, 「說元史中的「達魯花赤」」, 『蒙古史論叢(上)』, 台北: 學海出版社.
- , 1980下, 「說元代的馬政」, 『蒙古史論叢(下)』, 台北: 學海出版社.
- 蔡美彪, 1980, 「元代圓牌兩種之考釋」, 『歷史研究』 1980-4.
- , 1996, 「蒙古字元牌兩種音釋」, 『內陸亞洲歷史文化研究』,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 崔菊華, 2011, 「元代山東與高麗的貿易」, 『滄桑』 2011-1.
- 湯開建, 1983, 「『大元肅州路也可達魯花赤世襲之碑』補釋」, 『中國史研究』 1983-4.
- 包祥, 「2000, 新近在蒙古發見的元代八思巴字蒙古語金質聖牌」, 『內蒙古大學學報』 2000-4.
- 哈勘楚倫, 1990, 「「HARA-BANG」的第二故鄉」, 『蒙古文化通訊(台北)』 8.
- 黃清連, 1974, 「元代戶計的劃分及其政治社會地位」, 『台灣大學歷史學報』 2.
- , 1976, 「元代諸色戶計的經濟地位」, 『食貨』 6-3.
- , 1977, 「元代戶計制度研究」, 台灣大 碩士學位論文.
- 冢島彦一, 1966, 「イスラーム史料中にもみる鄭和遠征紀事について」, 『史學』 38-4.
- 岡田英弘, 1999, 『世界史の誕生 - モンゴルの発展と伝統 -』, 東京: 筑摩書房.
- , 2004, 「世界史はモンゴル帝国からはじまった」, 『べるそーな』 21, 2004年2月號.
- 高橋公明, 1987, 「中世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濟州島を中心とし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 33.
- , 2003, 「日本における濟州島史についての研究動向(16世紀以前)」,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歴史的前提に関する學際的研究』 2003年 8月.
- 宮紀子, 2007, 『モンゴル帝國が生んだ世界圖』, 東京: 日本經濟新聞出版社.
- 近藤浩一, 2014, 「東アジア海域と倭寇: 9世紀末の新羅海賊との比較史的考

- 察を通して, 『京都産業大學論集(人文科學系列)』 47.
- 吉原公平, 1938, 『蒙古馬政史』, 東京: 東學社.
- 丹羽友三郎, 1956, 「元世祖ジャバ遠征雜考—特に軍士ならびに海船の數について—」, 『史學研究』 61.
- 白鳥庫吉, 1970, 「『高麗史』に見えたる蒙古語の解釋」, 『朝鮮史研究(白鳥庫吉全集3)』, 東京: 岩波書店.
- 寺田隆信, 1981, 『鄭和一中國とイスラム世界と結んだ航海者—』, 東京: 現代書館.
- 山本達郎, 1935, 「鄭和西征考」, 『文哲季刊』 4-2,4.
- , 1940, 「元の南方經略」, 『日本諸學振興委員會研究報告第十一篇(第二歷史學)』.
- 杉本直治郎, 1952, 「蒲壽庚の國籍問題」, 『東洋史研究』 11-5・6.
- 杉山正明, 1992, 『大モンゴルの世界 — 陸と海の巨大帝國 —』, 東京: 角川書店.
- , 1995, 『クビライの挑戦』, 東京: 講談社.
- , 1996上, 『モンゴル帝國の興亡(上:軍事擴大の時代)』, 東京: 講談社.
- , 1996下, 『モンゴル帝國の興亡(下:世界經營の時代)』, 東京: 講談社.
- 桑原隲藏, 1923, 『宋末の提學市舶西域人蒲壽庚の事蹟』, 上海: 東亞攻究會.
- 羽友三郎, 1956, 「達魯花赤雜考」, 『史學研究』 61.
- 羽田亨, 1930, 「元朝の海青牌」, 『考古學論叢』 2.
- , 1957, 「蒙古驛傳考」, 『羽田博士史學論文集(上)』, 京都: 東洋史研究會.
- 原山仁子, 1971, 「元朝の達魯花赤について」, 『史窓』 29.
- 箭内互, 1930, 『蒙古史研究』, 東京: 刀江書院.
- 前嶋信次, 1952a, 「泉州の蒲氏勃興の年代について」, 『史學雜誌』 61-12.
- , 1952b, 「泉州の波斯人と蒲壽庚」, 『史學』 25-3.
- , 1953, 「元末の泉州と回教徒」, 『史學』 27-1.
- 池内功, 1929, 「高麗に駐在した元の達魯花赤について」, 『東洋學報』 18-2.
- 秦野裕介, 2002, 「「倭寇」と海洋史觀 — 「倭寇」は「日本人」だったのか —」,

- 『立命館大學人文科學研究所紀要』81.
- 川越泰博, 1974, 「泉州回教徒蒲氏系譜考—《蒲壽庚家譜》先世紀事の再検討—」, 『東方宗教』43.
- 青山公亮, 1940, 「元朝の地方行政機構に關する一考察—とくに路・府・州縣の達魯花赤について—」, 『台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研究年報』6.
- 村岡倫, 2011a, 「龍谷大學所藏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から見るユーラシア世界」, 『京都高等學校社會科研究會2011年度春季總會・研究大會』.
- _____, 2011b, 「龍谷大學所藏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に見えるモンゴル高原の諸都市」, 『第10回國際モンゴル學者會議』.
- 村上正二, 1942, 「元朝の達魯花赤に關する一考察」, 『史學雜誌』53-7.
- 榎一雄, 1944, 「海東牌のアラビヤ文學銘文」, 『考古學雜誌』33-7.
- Cleaves, F.W., 1953, “Daruya and gerege”, *HJAS*, XVI.
- Marco Polo, 1992, *The Travels of Marco Polo, the Complete Yule-Cordier edition, vol. I*,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 Munkuyev, N.Js., 1977, “A New Mongolian P'ai-ts'u from Simperopol”, *AOH*, 31:2.
- Nyamaa, B., 2005, *The coins of Mongol Empire and Clan Tamgha of Khans(XIII-XIV)*, Ulaanbaatar.
- Park, Won-Kil, 2015, “Tamra and Khubilai Khagan”, *Хубилай Сэцэн хаан ба Монголын Юань улс,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Түүх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 УБ*.
- Rachewiltz, I.de., 1971, *Papal Envoys to the Great Khans*, London: Faber & Faber.
- Silverstein, A.J., 2007, *Postal Systems in the Pre-Modern Islamic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ng, Hye-Suk, 2006, “The Foreign Policy of the Great Mongol State and the Paiza”, D.Tumurtoogoo, ed., *The Image of Mongolia in European and Asian Travel Literature*, Mongolian Academy of Scienc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Eurasia-Pacific Union, Ulaanbaatar.
- Латтимор, О., 1973, “Монгол гүрний үеийн эрх мэдлийн пайзны

- асуудал буюу байдал”, ОУМСХ, *Олон улсын монголч эрдэмтний II их хурал*, I боть, УБ.
- Пэрлээ, Х., 1976, “Монголын түүх судлах сурвалжийн нэгэн нь пайз мөн”, МУ-ын ШУА-ийн Түүхийн хүрээлэн, *Түүхийн судлал*, Tomus XIII, Fasc 7, УБ.
- _____, 2001, Эрхлэн нийтүүлсэн А.Очир,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өгүүллүүд(II)*, МУ-ын ШУА-ийн Түүхийн хүрээлэн, УБ.
- Жанчив, Ё., 2005, *Сонгодог монгол бичгийн өмнөх үеийн дурсгалууд*, УБ.
- Банзаров, Доржи, 1997, “Пайзе, или металлические дощечки с повелениями монгольских ханов”,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 Отв. ред. Д.Б. Улымжиев; Предисл. В.Ц. Найдакова; РАН. Сиб. отд-ние. Бурят. ин-т обществ. наук. - 2-е изд., доп. - Улан-Удэ: Изд-во БНЦ СО РАН.*
- Жамцарано, Ц.Ж., 1914, “Пайзы у монгол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Записки Вост. отд-ние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Русског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 X X II. - СПб.
- Крамаровский, М.Г., 2001, “Символы власти. Золотоордынские пайцзы как феномен офиц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Золото Чингисидов: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Золотой Орды / Марк Крамаровский; Гос. Эрмитаж. - СПб. : Славия.*

Abstract

The Value of Tamna in History of the Mongol Empire

Yang, Hye-Suk* · Park, Won-Kil**

This article divides the value of Tamna in the Mongol Empire history into Khan Balig(大都, Yeke Khota) and the sea route, the encounter between the Mongols and the Tamnas, and the Darugachi(達魯花赤) of Tamna and the 'Map of the Unified Territory and Dynastic Capitals throughout History' (Honil kangni yeoktae kukto chi do,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Kangnido). The Mongols had completed the Eurasian Steppe route. Especially, we concentrated on how they had made the sea route during the reign of Khubilai Khagan from 1260 to 1294. Tamna was the axis of the sea route at that time. We have examined that Tamna had showed what kind of relationship with the Yeke Yuan Mongols and what role it had played. As a result, Khubilai Khagan is considered a historical figure who recognized Tamna's values and utilized them in Tamna history. We noticed two families of Lee Jang(李莊) and Silbi(失里伯) among the Darugachi of Tamna. It seems that Silbi's family is the main line of descent of the Darugachi of Tamna. The Kangnido, the world's first world map is related to Tamna.

* Ulaanbaatar State University

** Director, Research Center for Chinggis Khan Studies

Keywords : Khan Balig, Khubilai Khagan, P'u Shou-kêng(蒲壽庚),
Darugachi of Tamna, Lee Jang(李莊), the Kangnido(混一疆
理歷代國都之圖)

교신 : 박원길 403811 인천시 부평구 향동로 40,
라일실크빌 A동 202호
(E-mail : altanoboo@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19. 01. 15

심사완료일 : 2019. 01. 25

게재확정일 : 2019. 01. 28